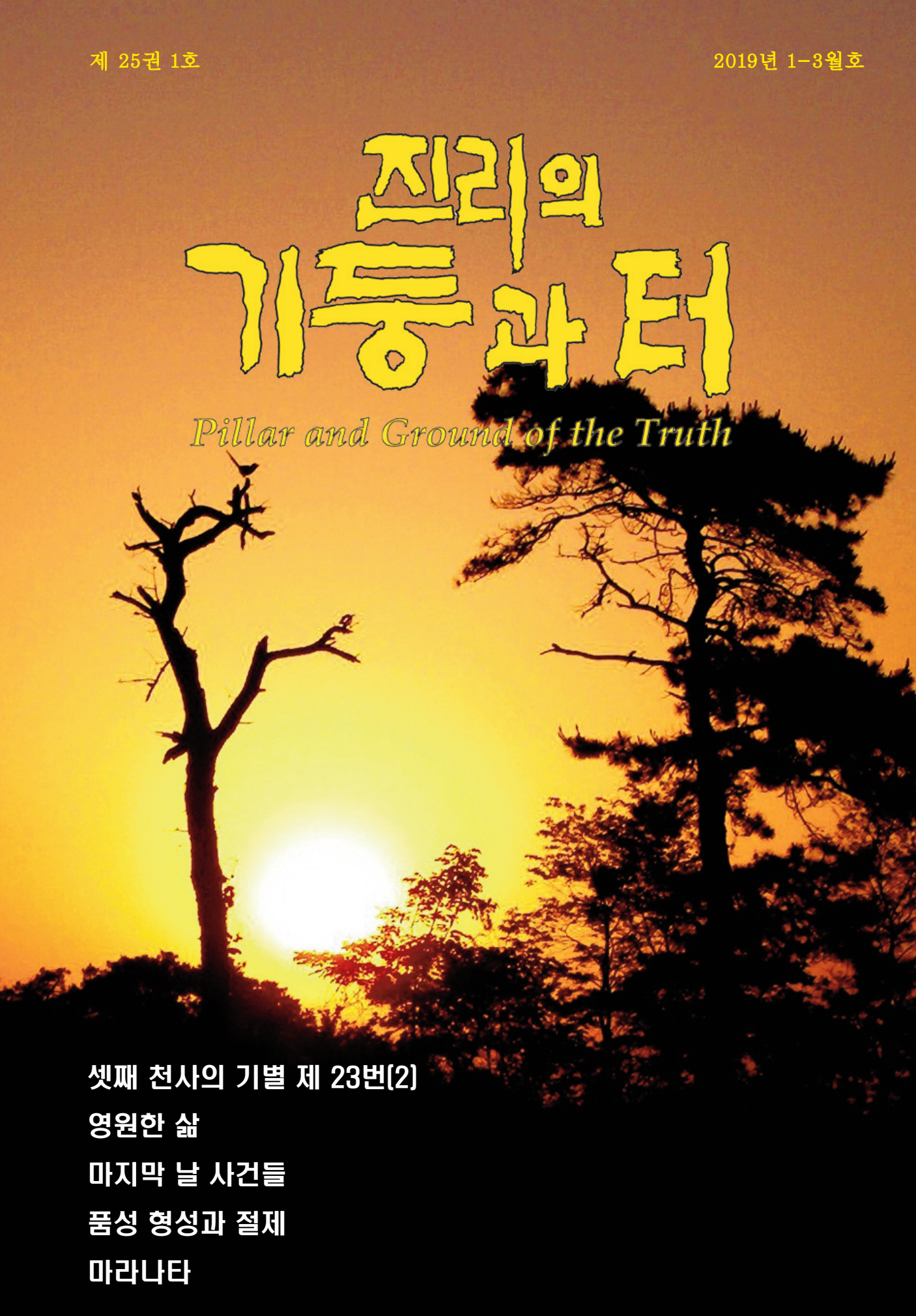
제 25권 1호 2019년 1-3월호

진리의 기둥과 터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셋째 천사의 기별 제 23번(2)

영원한 삶

마지막 날 사건들

품성 형성과 절제

마라나타

더 밝은 빛으로

편집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 4:18)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 이 세상의 어떠한 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2019년 마지막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의 삶의 계획들이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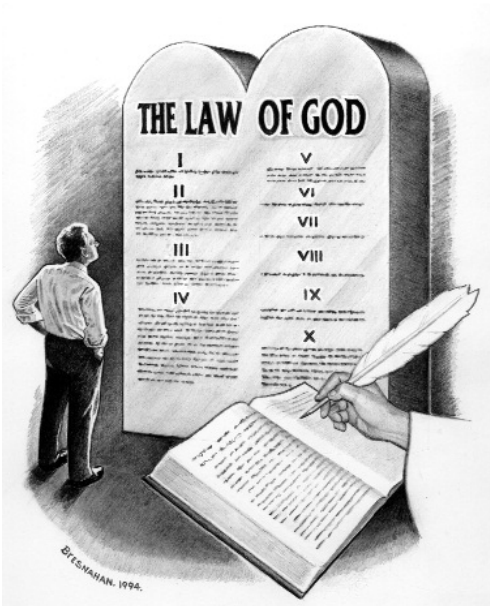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고 말씀하셨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잠 4:18)른다. 믿음과 순종의 길은 매 걸음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세상의 빛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해준다. 의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칠 때 그들은 그분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 마치 별들이 하늘에 큰 빛이 있어서 그 영광으로 저들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주의 보좌에 찬양과 모본의 대상이 되기에 합당한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은혜와 그분의 품성의 순결과 성결은 그분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75.

"주님께서는 인간 대리자들이 전진하며 진리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순종할 때 새롭고 강한 힘을 당신의 사업 가운데 침투시키실 것이다. 당신의 진리가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선언하신 주님께서는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충성된 사자들을 통하여 이 진리를 선포하실 것이다. 진리는 비판을 받게되고 비웃음을 당할 것이며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면밀히 검토하고 시험할수록 더욱 밝은 빛을 낼 것이다." – 가려 뽑은 기별 1권, 201.

"진리의 빛은 땅 끝까지 밝히 비추어져야 한다. 캄캄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뚫고 빛을 발산시키기 위하여 구주의 얼굴에서 비치는 거룩한 빛과 함께 더욱더 밝은 빛이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비추어져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성령의 거룩케 하심을 입어 더욱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 증언보감 3권, 223.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이기적이거나 편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원칙은 확산적이요 공세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밝은 빛으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또한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나타내셨다. 열심과 열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원근에 퍼뜨리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힘과 연합을 위하여 활동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불화와 분열이 잠입할 기회가 주어질까 염려하여 주의 깊이 경계할 것이다." – 교회증언 5권, 238.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분이 주신 아름다운 빛을 어떻게 이 세상에 전파할까 고심하고, 기도하며 진리의 원칙에 굳게 서서 남은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의 참된 청지기가 되기를 간구하며 믿음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높이 들리운 영원한 진리의 토대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신다. 그들은 의견이 일치할 것이다. 곧 이 사람은 이것을 저 사람은 전적으로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앙과 견해를 견지하고 각자가 몸으로부터 독립하여 움직이는 불일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두신 다양한 은사들과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신앙의 일치에 이를 것이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9.**

책을 열며 2

1895년 대총회 회보 4
셋째 천사의 기별 제 23번(2)_A.T.존스

진리탐구 9
영원한 삶_원동규

시대의 징조 15
마지막 날 사건들_E.G.화잇

절제와 부절제의 대쟁투 18
품성 형성과 절제_김동춘

약용식물 27
마늘_편집부

2019년 기도력
마라나타 28

◎ 2019년 1월-3월호(분기별 정기 간행물) | ◎ 통권 제25권 1호 제177호 | ◎ 2018년 11월 28일 인쇄 | ◎ 2018년 12월 15일 발행 | ◎ 편집인 출판위원회 | ◎ 인쇄인 서진인쇄사 | ◎ 발행처 의성사 |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한국합회 |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983-23 | ◎ 전화 (054)435-1843 | ◎ 팩스 (054)434-4521 | ◎ (우체국) 700377-01-005190; (농협) 351-0513-4988-73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 정기 구독료-1년분 20,000원 ◎ WWW.SDARM.OR.KR

셋째 천사의 기별 제 23번(2)

A.T.죤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좀더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이제까지 정사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정사와 권세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셨다.

"권세(power)"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여러분 자신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인데 그 단어의 명백한 의미는 "바른 것을 대항하는 능력"으로써 행사하는 권위, 힘(권세) 이다. 이것이 그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다.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권위(Authority)가 된다. 명백한 의미를 제외하고도 동반되는 올바른 여러 뜻이 있다. 동반된 뜻에서는 그것(power)이 나타내는 관계에 의하여 그 권세의 성격이 입증된다. 예를 들어 그 단어가 예수의 권세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물론 타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말함인데 이는 주님의 권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이 세상의 권세로써 쓰여질 때에는 모든 경우마다 이 세상의 본성과 세상을 지배하는 영으로부터 연합을 취하니 그렇게 되면 "바른 것을 대항하는 능력"의 권위나 권세로써 표현된 명백한 의미로 확실하게 된다. 바른 것에 대항하는 능력의 권위나 권세의 참람됨이 이 우주안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오래전에 하늘에서 자신을 나타내려는 참람된 루스벨(Luuifer)의 반역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그 권세를 이 세상에 가져 왔으며 속임수로 이 세상의 소유권을 얻었을때 이 세상위에 권세를 강하게 묶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위에 높히실 때에 그것은 사단이 세상에 가져오고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른 것에 대항하는 능력인 이 권세위에 높히심을 보여 주는데 단어가 적합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좀전에 언급하였던 사상을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의 싸움은 태초로부터 그저 두 영적 권세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요 정한 권세와 불법의 권세간의 쟁투요 능력을 대항하는 정의의 권세와 정의를 대항하는 힘의 권세 사이의 싸움인 것이다. 이 싸움은 두 영적 권세 간의 싸움이다. 우리는 정의를 대항하는 능력의 권세 무력의 권세의 지배아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대항하는 정의의 지식 – 사랑의 권세 – 을 가져다 주셨다.

우리는 정의를 대항하는 힘의 지배와 권세 – 무력의 권세 –를 부수어 버리고 힘을 대적하는 – 정의의 권세 – 사랑의 권세에 우리의 충성을 합쳤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 대한 싸움은 이 두 권세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싸움은 항상 이 두 영적 세력간의 싸움인 것이다. 그 능력의 외형적 표현으로 어떤 수단이 이 세상에서 이용되든지 싸움은 언제나 두 영적 권세 즉 예수 그리스도와 타락한 왕자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 사상을 바탕으로 좀더 깊이 공부하여 어디에 우리의 승리가 있으며 주님께서 이러한 불법의 세력 곧 정의를 대항하는 힘의 권세를 승리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골로새서 2장 9절로부터 읽어보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

여러분을 그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지난 밤에 에베소서 2장에서 읽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가 앉으시는 곳에 함께 앉게 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승리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열쇠를 알 수 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난외주에나 독일어 성경에는 "그들(정사와 권세)위에 그 자신 안에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었다. 여기에 기록된 권세는 헬라어 정의에 대항하는 힘의 권세로 표현된 권세와 같은 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읽어 보겠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사단이 정의를 대항하는 힘의 권위를 창시한 자이다. 속임수로 세상의 머리 되었던 자의 머리 또는 지배하는 권세가 되므로 이 세상의 머리가 되었다. 아담과 그의 통치를 그의 지배 아래 처하게 하므로 이 통치의 머리요 이 세상의 우두머리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세상에 오셨다. 우리는 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는 이미 그가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 상태로 오시지 않으셨다. 첫째 아담은 그가 왔을 때에 그의 후손들이 그때 상태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으로부터 나온 후손들의 타락한 상태로 오셨다. 이 둘째 아담은 그러한 상태로 오심으로, 세상의 소유권을 탈취한 자의 통치와 싸우셨다. 싸움은 이 땅위에서 이 둘 사이에 있었다. 싸움은 재물을 나눌 것인지 아니면 정의를 대항할 힘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을 쟁탈할 자의 손에 소유가 안전할 것인지 대한 것이었다. 이 반역한 통치에 도전한 그는 소유를 가지고 있던 자보다 더 강함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그는 살아 계시는 동안 매 발걸음마다 그를 눌러 이기셨다. 그리고 우주 세계에 그가 다른 자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온전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가 살아 계실때 매 발걸음마다 사단을 눌러 이기셨을 뿐아니라 자신을 바쳐 죽은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 다른 자의 권세에게 내어주셨다. 소유권을 갖고 있던 자는 그를 그의 요새에 봉쇄하여 버렸으나 그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살아계셨을 때 뿐 아니라 죽었을 때에도 사단보다 강함을 나타내셨다. 죽었을때 그는 사단보다 더 강했다. 그러므로 그가 무덤으로부터 나오셨을 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우주앞에 외칠 수 있었다. 그가 이제 살아 계신다. 매우 좋다. 주님께 감사하자.

자, 그러면 이제 죽은 그리스도가 마귀의 모든 능력보다 강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실망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땅에서 마귀가 소집할 수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어떤 이유라도 있는가? 아니다. 죽었을때에도 모든 능력을 가진 사단보다 더 강하사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지금 살아 계신다.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의 능력 – 그의 살아 있는 능력 – 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셨다. 그가 죽었을 때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아니하는가?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으셨다. 그것은 살아있는 권세인 것이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복하기 바란다.

예수께서는 그 통치권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정의에 대항하는 힘의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는 이자의 불법의 권세의 요새로 들어가셨다. 그보다 더 강한 이 분은 요새에 들어가 소유를 빼앗고 열쇠를 가지고 나오셨으며 그는 지금도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주께 감사하라. 만일 이 불법의 권세가 우리 중 어떤 이들을 같은 곳에 감옥에 갖히도록 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는 우리를 거기에 가둘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친구되시는 분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실때 키를 돌리시면 문은 활짝 열리게 되어 우리가 온전히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가 열쇠를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그가 무덤으로부터 나오실때 열쇠를 가지고 나오셨으며 그 열쇠를 아직도 그리고 영원히 손에 들고 계신다. 그 이유로 인해 다음과 같은 말씀이(엡 4:7, 8)기록 되었다. "우리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가실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는 정사와 권세를 상하게 하셨다. 그가 무덤에서 나오실때 포로들의 무리를 사단과

죽음의 통치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리스도의 못박히실 당시의 광경이 마태복음27장 51-53절에 기록 되어 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가 못박히실때 무덤들이 열렸다. 그들이 언제 무덤에서 나왔는가? 예수의 부활후에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가 무덤에서 나오실때 그는 포로된 무리들을 인도하셨으며 그가 올라 가실때에는 원수의 땅으로 부터 회복된 사로잡힌 자들이 탄 그의 열차로 그들을 높은 곳에 인도하셨다. 여기 언급된 숫자는 정사와 권세들을 물리치고 공개적으로 포로들의 웅장한 행렬을 보여줌으로 그 안에서 그들 위에 승리하였음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여기 승리라는 단어는 로마 개선식을 나타내는 말이다. 로마 개선식은 원수의 나라에 가서 원수와 싸워 재물과 포로들을 취하여 자신의 나라에 돌아온 장군에게 허락된 것이다. 그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있던 어떤 로마인 일지라도 그는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 가도록 하였다. 그가 완전히 승리하고 되돌아 갈때에 의회에서는 그에게 개선식을 허락 하였다. 그의 개선식에 그는 단색을 가진 6,7마리의 훌륭한 말이 이끄는 멋지고 위엄있는 마차에 앉아 그가 다시 빼앗은 재물과 포로되었던 자들을 이끌며 로마의 모든 거리 여기 저기를 행진하였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위대한 축제날에 모두 밖에 나와 개선 장군인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정복자, 정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원수의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셨다. 우리는 불법자의 권세에 포로가 되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셔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원수의 요새로 들어가셔서 그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요새를 부수셔서 문이 열리게 하셨으니 열쇠를 빼앗아 재물들을 취하고 포로된 자들을 석방시켜 개선 장군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높은 곳에 있는 영광스러운 성에 이르게 하셨다. 이제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의에 대항하는 권세의 주인인 이 불법의 권세를 이길수 있다. 사단에 대한 이 승리에는 힘에 대적하는 정의의 권세가 온 우주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힘에 대적하는 정의의 권세는 아무 힘도 사용할 수 없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무저항이라 불리는 바로 그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무저항– 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가? 그리스도께서 힘을 대적하는 정의의 권세를 나타내시기 위해 힘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는가? 아니다. 정의에 대항하는 힘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기회마다 힘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기기 위해서는 힘밖에 쓰여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정의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려해 볼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 정의는 언제나 차후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한편 힘을 대적하는 정의의 권세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의에 있는 것이다. 힘은 정의 자체 속에 있다. 힘에 대적할 정의의 원칙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도록 정의의 원칙을 약속한 자들은 어떤 종류의 힘에도 호소할 수 없다. 그는 정의의 권세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힘도 사용할 수 없다. 그는 정의의 권세가 그것에 대항에 다가올 모든 힘의 권세를 이기고 정복하도록 정의의 권세를 의지할 것이다. 이것이 비밀인 것이다.

왜 예수께서 그를 대항해온 힘 앞에서 양과 같이 되셨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함을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는가? 그들을 대항하는데 힘을 사용하여 그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다. 칼을 빼어 그를 보호하려 하였을때 칼을 도로 집어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힘을 대적하는 정의의 권세 – 사랑의 능력에 충성하기를 약속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으로 돌아가시고, 상하시고, 찢기시고, 조롱받으시고, 냉대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모욕은 그의 위에 지워졌고 그는 그 아래서 힘을 대적하는 정의의 권세에 호소하시는 가운데 돌아가셨다. 그가 충성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권세는 그후 세계를 움직였으며 그리고 우리의 때에 전에 결코 움직임이 없었던 그러한 움직임으로 그것은 세상을 움직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충성하기로 연합하였고 선약한 원칙에 충성하기로 약속하고 마음 가운데 원칙에 맹세하며 생각을 전혀 어떤 것에도 두지 아니하고 정의와 그것의 권세의 명백한 원칙 외에는 아무것에든지 호소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얻으시자 마자 우리는 그리고 세상은 전에 결코 없었던 이 권세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삶

원 동 규

안식일의 축복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세계의 큰 규모로 오늘날 내려다 보게 된 십계명 가운데 한 가지를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20:8~11절에 나타난 바 넷째 계명이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다섯째 계명을 제외한 다른 계명들은 "너는 하지 말지니라"는 말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구속주이신 그분을 기억하도록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사랑에 대한 그분의 약속의 날이다.

우리가 매주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더욱 밀접한 관계로 인도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께서 또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구원하시려 하신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어떤 현대 저술가는 이것을 적절히 표현하기를 "안식일은 전 세계적으로 지켜져 왔다. 사람들의 생각과 애정은 존경과 예배 대상으로서 창조주께 인도되어야 하였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또는 불신자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시이다. …"

안식일의 기원

첫번째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어떤 세 가지 특별한 역사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날을 그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셨는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 2:1~3)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의 사업을 마치신 후에 제칠일을 휴식의 날로 남겨 두셨다. 그분께서는 제칠일에 쉬실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어떤 물건을 성별한다는 것은 하나의 거룩한 사용을 위하여 따로 떼어 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제정된 두 가지 신성한 제도는 결혼 제도와 안식일 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저희가 때의 마지막에 가까이 이름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저희들의 올바른 위치로 회복되어야만 한다.

'안식일의 목적'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안식일이 세워졌는가?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막 2:27)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이 유대 나라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다른 국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과 지나간 구절에서 안식일은 유대 나라가 시작되기 훨씬 오래 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인용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안식일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칠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출 31:17(출 20:11 그리고 시 111:4을 또 읽어보시오)

누구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 되었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3; 히 1:1, 2; 골 1:16, 17).

안식일이 창조 사업의 기념이 된 이래 그것은 또한 우리 마음에 만물의 창조주를 기억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은 매 주일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안식일은 왜 중요한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 31:13; 겔 20:12, 20).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전 1:30)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발견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사 8:16.

성경 가운데 율법이나 어떤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인쳐지기 위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내포하고 있다.

인의 의미는 무엇이며 인은 보통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인은 저들의 권세의 증거로써 개인적인 것, 주식회사(단체)와 정부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그것은 순종을 요구하거나 법률에 대한 예비 대책으로서 합법화하거나 문제시하게 될 서류에 대하여 법률이나 결정에 관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하나의 법을 위하여 하나의 인이 필수적인 것이다. 인은 어떤 개인을 확인하는 그의 이름, 그의 직함, 그의 영토의 범위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의 실례는 아브람 링컨은 (이름)이 될 것이고 대통령은 (직함)이 되며 미국은 (영토)가 될 것이다.

열 가지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하나님의 인을 소유하고 있는가?

넷째 또는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인으로서 권한을 주는 열 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계명이다. 다음의 구절을 주의 깊이 읽어보기로 하자(출 20:8~11). 여기에서 그대는 하나님의 인을 발견할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름이고 하늘의 창조주는 직함인 것이다. 그는 석판에 친히 율법 안에 그분의 인을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히 11:3) 땅을 허공에 다시며(욥 26:7) 만물을 붙드시고(히 1:3) 생명을 유지하시고 계신다(행 17:28). 그러므로 그는 확실히 궁극적으로 소유권과 통치자의 직권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계신 것이다. 안식일은 그분의 통치권에 대한 창조주의 표징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창조주의 율법의 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음에 있어서 어떤 세 가지 계단을 경험하게 되는가?

1. 엡 1:13 -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인침을 받는다.

2. 고후 1:22 -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그의 성령을 받아들인다.

3. 고후 7:1 - 우리의 생애가 변화된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적으로 진리가 옳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중지하여 진리에 대하여 지적인 지식으로만 만족하고 있다. 저들은 이것이 구원을 위하여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진리의 사랑"을 또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살후 2:10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거하시게 함으로써만 진리를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다(요 14:6).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성화) 곧 인치는 사업에 있어서 셋째 계단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 혹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더욱 예수와 같이 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은(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유이다. 각개인의 영혼들은 그의 생명을 위하여 시험을 받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분께 드렸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물을 그분의 것으로써 모두 그분께 바쳤는가? 이 생에서 저희 삶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징 곧 인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들 앞에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은 그들의 다시 받는 보답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표징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인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분을 사

랑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보시기에 매우 귀중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저들에게 저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존경할 만한 대표자들로 저들이 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혀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천사는 읽을 수 있는 표이나, 사람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별력이 있는 마음은 주님의 양자녀들로써 갈바리의 십자가의 표징을 보았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죄는 옮겨졌다. 저들은 결혼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고 있다."-E. G. 화잇.

안식일은 성화의 표이다. 그리고 우리가 참 안식일을 지키는 축복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더욱 풍성하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도우시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다른 날보다도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한 우정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는 충실하게 될 능력을 받아서 다음 주에 일어나는 시험을 정복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더욱 더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경험에 들어가게 되기를 기원한다.

변함없는 기념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약속 일자"라는 것에 관하여 배웠다. 우리는 안식일을 "사랑에서 시작된 약속 일자"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땅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 그분의 업적과 그의 구원하는 능력을 중재하기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로써 주어졌다. 우리 인성으로는 우리가 생애의 세속적 사물을 위하여 실행할 때에 분투하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일곱 날 동안 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그분께서 만물을 만드신 것을 특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하루가 필요한 것을 아셨던 것이다.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 2:2, 3.

여러분은 또한 안식일이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한 표징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 기억에 앞서 어떤 사물 즉 그리스도의 창조력은 또한 영적 능력과 용기를 새롭게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를 그의 창조물 가운데서 바라보는 때에 우리는 이같은 창조력이 또한 우리의 자유라는 사실로 용기와 새 희망을 받게 된다. 만일 우리가 원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창조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괴롭히는 모든 죄악을 정복할 승리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움이 되는 지식을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안식일이 계획된 것이다.

'주의 날'

어느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 사 58:13.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막 2:28.

주일 중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제칠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 출 20:10.

"예수님과 안식일"

안식일을 존경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규례는 어떠하였는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눅 4:16.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 그리고 그는 자신이 승천하신 지 오랜 후에 안식일의 중요성을 인정하셨는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 24:20.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3년반 즉 A.D.66년 10월 늦게까지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신성한 한 날로 중요시 되었다는 증거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은 안식일을 하나의 거룩한 날로 준수하였는가?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눅 23:56(여기 본문에 언급된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11절에 나타나 있음).

'바울과 안식일'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는가?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행 16:13.

바울은 안식일의 중대함을 인정하여 예수님의 모본을 어떻게 따랐는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행 17:1, 2.
이같이 우리는 안식일에 종교 예식에 참석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규례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주일 중 일하는 날들을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그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였는가?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행 18:3, 4.
바울은 주일 중 엿새 동안 장막 만드는 업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안식일 곧 제칠일에는 회당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였으며 그 기록은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고 말해 주고 있다.

새 땅에서의 안식일

구속받은 무리들은 새로 창조된 땅에서 경배하기 위하여 어느 날에 같이 모일 것인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사 66:22, 23.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을' (창 2:1) 때에 창조주와 온 하늘 거민들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욥 38:7).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

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행 3:21) 때가 올 것인데, 그 때에도 예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날인 창조의 안식일이 역시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연합하여 '매 안식일에' (사 66:23) 찬양을 드리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시대의 소망 3권 308, 309.

여기에서 잘 알려진 찬미의 가사들은 주의 사랑에서 비롯된 날 곧 그분의 참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기쁨과 축복을 매우 아름답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안식일을 잊지 마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복되도다.
모든 주일 중 가장 빛나며 모
든 주일 중에 최선의 날이니
이는 수고에서 휴식을 가져오
며 거룩한 기쁨을 말하도다.
빛의 광선이 내려와 하늘의 아
름다움을 비치도다.
(합창)언제나 환영하라 항상 맞이하세
이는 복된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상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안식일이 저들을 구별하는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의 안식일로 들어가는 때에 저들을 구별하는 표징이 된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이요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한 표징이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과 범죄자들과를 구별하여 준다." 교회증언 6권 349.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력과 구속하는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것처럼 기쁨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저희들에게 구속에 있어서 그의 강하신 능력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써 창조 사업을 지적하여 주고 있다. 안식일은 에덴의 잃어버린 바 된 평화를 생각나게 하는 반면 구세주를 통하여 평화가 회복된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은 사실상 구세주의 초청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연합시키는 황금 고리이다." E.G.화잇, 믿음으로 살리라 33.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바라 마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는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고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속히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은 속히 익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시려고 강림하실 것이다." - 실물교훈, 69(1900).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재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벧후 3:12 상단) - 시대의 소망, 633(1898).

"그분께서는 그분과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비참한 광경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 교육, 264(1903).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

"무한하신 분께서는 틀림없이 정확하게 모든 나라에 대한 기록을 여전히 보관하고 계신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으로 그분의 자비가 제공되어 있는 동안 이 기록은 열린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양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분의 진노의 역사(役事)가 시작된다." - 교회증언 5권, 210(1882).

"하나님께서는 열국들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계신다. 하늘의 책들에는 그들에게 불리한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주일 중 첫째날을 범하면 형벌로 다스린다는 법령을 제정할 때에 그들의 잔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 성경주석 7권, 910(1886).

"하나님께서는 국가들을 심판할 재료를 간직하고 계신다.… 그 범죄가 정해진 하나님

의 자비의 영역에 완전히 이르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록책에 집계된 총계가 범죄의 양을 다 채웠음을 나타낼 때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임할 것이다." - 교회증언 5권, 526(1888).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지만 사람들이 그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 있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에는 긍휼을 베푸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 된다." - 부조와 선지자, 162, 165(1890).

"그들의 기만과 나태 가운데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실 지점에 다다를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들은 여호와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 교회증언 9권, 13(1909).

"여호와의 형벌이 더이상 지체하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선지자와 왕, 417(1914).

죄악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함

"지상의 거민들이 그들의 불의의 잔을 채우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며 이 땅은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 교회증언 1권, 384(1863).

"불의의 잔은 거의 채워졌으며 하나님의 공의의 복수가 죄인들에게 임할 것이다." - 교회증언 4권, 489(1880).

"세상 거민들의 죄악은 거의 그 한계에 도달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파괴자로 하여금 그의 뜻을 펴보도록 허용하실 지점에 거의 도달했다." - 교회증언 7권, 141(1902).

"불법은 이제 거의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 세상에는 혼란이 가득하며 무서운 공포가 곧 이 세상을 엄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박두했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매우 갑작스럽게 세상에 닥칠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교회증언 8권, 28(1904).

우리는 여호와의 큰 날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함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박두한 심판의 큰 장면들을 생각하며 숙고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한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큰 날의 장면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 형제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화잇 자매여, 당신은 주님이 10년 이내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께서 2년, 4년, 혹은 10년 이내에 오신다고 해서 당신에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만약 주님께서 10년 이내에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글쎄요. 나는 내 재산을 처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고 내가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어요"라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 때 내가 말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20년 이내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다르게 살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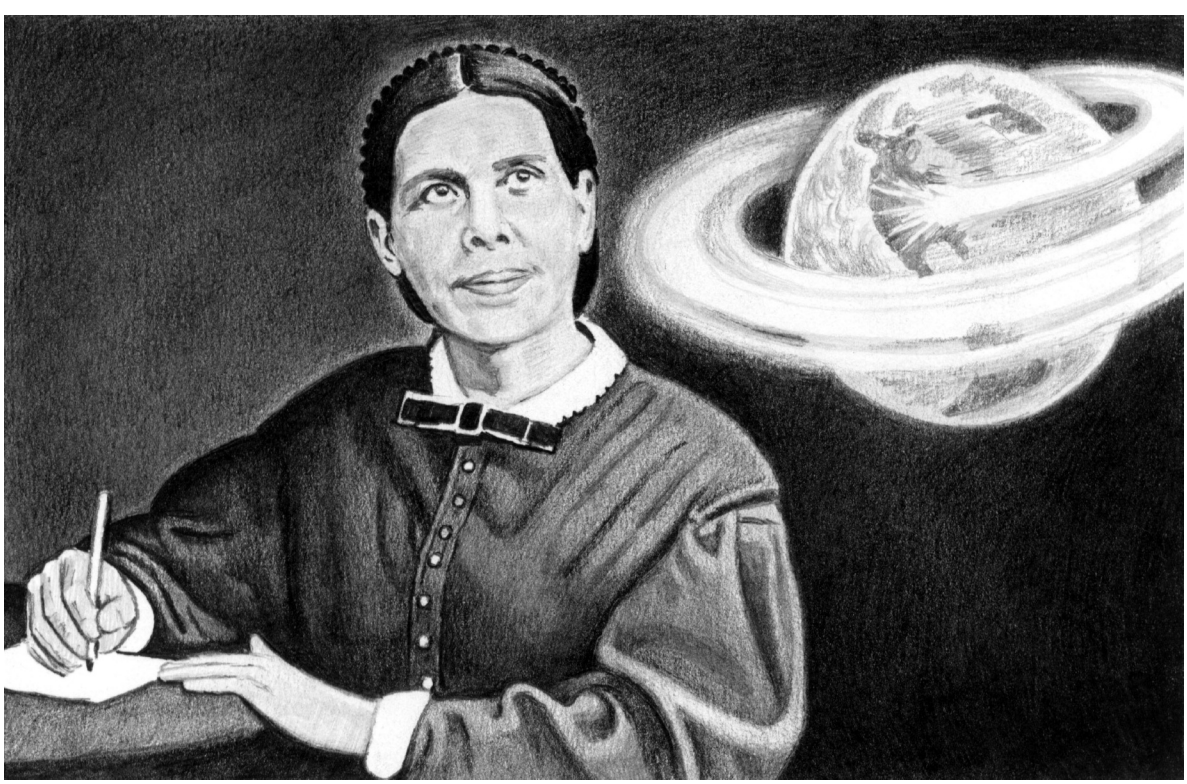
그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님이 10년 이내에 오신다는 것을 알 때 다르게 살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가! 생각해 보라.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매일 깨어서 기다리지 않는 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원고모음 10, 1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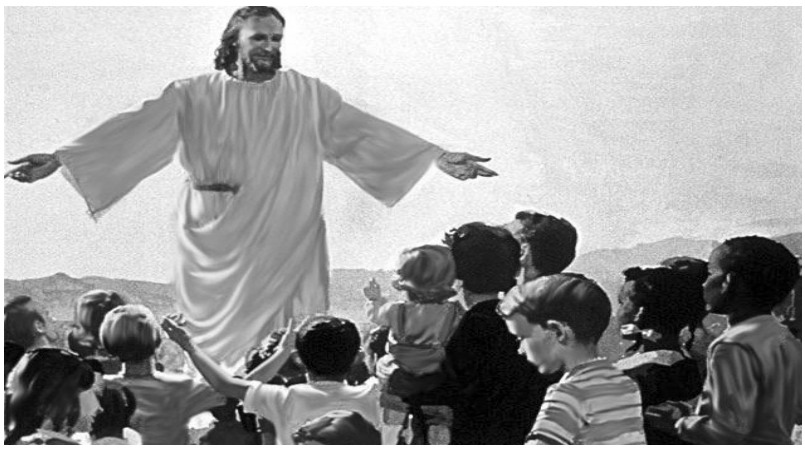
시간이 짧음

"지금 하나님의 사업과 일에 부주의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밤낮 쉼을 주시지 말기를 나는 바란다. 마지막이 임박했다. 예수께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 서신 97, 1886.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유리바다 위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금거문고를 타며 우리 앞에 영원한 시간이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기다리던 그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짧은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 10MR, 266(1886).



품성 형성과 절제



김 동 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성품을 다시 형성시켜 무한하신 하나님과 산 연합의 관계에 들어갈 때에만 참다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절제 사업의 진정한 목적이다." (교회증언 6권 111, 절제생활 102)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거하는 원칙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결코 절제하는 자가 될 수 없다. … 환경은 개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리스도교는 마음에 개혁을 일으킨다. 그리스도께서 내부에서 역사하신 결과가 변화된 지성의 지시하에 외부로 나타날 것이다. 계획을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부로 역사하게 하려는 노력은 항상 실패하였으며 언제나 실패할 것이다." (절제생활 102)

"육체는 정신과 영혼이 품성 향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유일의 매개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원수는 바로 육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타락시키는 데에 그의 유혹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가 이 점에 성공하면 전 인간을 죄악에 굴복시키게 된다. 우리의 타고난 육체적 경향이 더 높은 능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분명히 파멸과 사망을 초래할 것이다." (절제생활 102)

진화론적 절제(예)

"이런 것들(담배와 술)은 독약이며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면 혹자는 말하기를 나는 점진적으로 끊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단은 그런 결심을 조소한다. 사단은 말하기를 "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두렵지 않다. 그들은 꼼짝없이 내 수중에 있다"고 한다." (절제생활 103)

"참된 절제는 모든 해로운 것을 버리고 건강에 유익한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562(1890)).

「참된 절제」는 진화론적(점진적 절제)이 아니라 창조론적(단호하게, 과감하게, 순간적으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심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몸에 나쁜 것을 끊는다는 것은 힘든 투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대를 도울 것이다. 유혹이 올때마다 나는 하늘의 보화를 더 추구하고 얻기 더 갈망하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부절제는 관심이 없어졌어」라고 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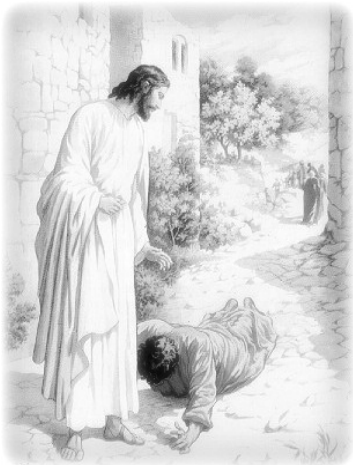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 매순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사단은 굶주린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 다닌다. 깨어 있어 주님 안에 피난처를 찾자!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너를 돕기 위하여 너의 오른편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원고 9, 1893)

"부도덕을 고치는 유일의 치료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훌륭한 결심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세상의 온갖 서약이 악습의 힘을 깨뜨릴 수 없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후에야 비로소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 순간도 우리 자신을 죄에서 보호할 수 없다. 매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 (가정과 건강 142)



주님의 생애를 통한 우리의 승리

"구주께서는 연약한 인성을 취하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인간성의 약점 때문에 승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는 인성이 신성과 연합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보여 주기 위하여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능력을 받으셨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악을 저항할 수 있게 해주셨다." (가정과 건강 143, 14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벧후 1:4)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 119:11)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좇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시 17:4)

오직 하나님안에서 승리

"사람들이 영혼의 성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각성시켜 그들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성을 회복시키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회개시킬 수 없다. 습관의 노예가 된 자들은 오직 그분에게서만 그들을 얽매고 있는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그의 신체적 · 정신적 · 도덕적 활력을 앗아가는 습관에 계속적으로 방종하는 동안에는 그의 몸을 하나님께서 가납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가 불가능하다. 사도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절제생활 108)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개혁이 없음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어떤 진정한 개혁도 성취될 수 없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벽(性癖)을 방지하기 위한 인간적 방호벽은 마치 급류(急流)를 막으려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애로써 생기를 주는 능력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과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영혼을 부패케 하는 자연적 경향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해 주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애하셨다. 그분께서는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정욕과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신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완전한 품성을 소유할 수있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다.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사람의 마음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고귀한 율법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죄의 속박에서 나오고, 인간의 정욕과 감정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복자, 자기 자신의 성벽의 지배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엡 6:12)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치료봉사 130, 131)

부절제는 「성화」의 방해가 됨

"식욕의 방종은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의 적(敵)임 — 식욕에 방종하는 자가 그리스도

인 품성 완성을 이루기란 불가능하다." (교회증언 2권, 400)

「성화」는 영과 혼과 몸의 완전

"성경에 나타난 성화는 개체 전체 곧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완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화 7)

"인생의 수확은 품성이며, 이 품성이 현세와 내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교육 109)

1. 음식물과 절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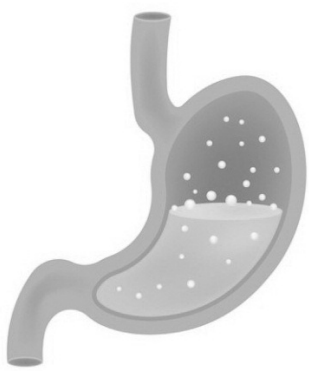
소돔의 멸망 때

"식물의 풍족함"이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였고, 식욕의 방종은 비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었다. 소돔은 결국 의로운 자(절제하는 자) 10명이 없어 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부절제의 결과)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어진 거울이요, 경고요, 초청이 되고 있다.

1) 과식은 온갖 병을 불러 오는 통로

① 과식과 소화기관

소화력은 각 사람의 체력에 따라 한계가 있다. 위장의 소화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각자가 느끼는 경험에 의해서 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장의 모양이 섭취량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양은 75%이다. 위가 건강하게 정상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면 어떻게 75%의 양을 먹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트림(공기가 빠짐)으로 측정된다. 트림은 위장 속에 있는 공기가 음식이 차면서 빠져나갈 때 트림을 하게 된다.

1차 트림은 75%
2차 트림은 85%
3차 트림은 100%

이렇게 하나님은 위장을 만드실때도 센서(감지기)까지 해 놓으셨다. 위장을 건강하게 유지 시키려면 생리학적으로 과식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② 과식의 습관

습관적으로 과식을 하게 되면 위장이 늘어나 탄력을 잃고 무기력 해지면서 음식의 무게에 의해 아래로 처지게 된다. 이런 상태를 「위하수」 증이라고 하는데 「위하수」는 약이 없다. 먹은 음식이 항상 위장 속에 남아서 빵을 찔 때 이스트를 남겨 놓으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음식이 위장속에서 발효(썩는) 현상이 일어나 위장에 가스가 발생하고 결과로 위염(胃染)에서 만성위염, 위암으로 발전되어 치료가 어렵게 되어 생명이 위험하다.

또 다른 부패작용이 일어나는데 대장에 큰 장애를 일으키고 헛배, 가스, 트림, 대장염 등 「소화기 장애」가 생긴다.

이런 결과 알레르기, 피부질환, 두통, 뇌신경질환 등을 비롯한 난치성 질병들에 시달리게 된다.

폭식은 자살 행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식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건강에 대한 값비싼 시험에 빠진다. 뇌가 흐려져서 그들의 생각은 느려진다. 그리고 절제와 절식을 했어야만 좋았는데 실패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일에 절제가 지켜졌더라면 하나님의 봉사 사업에 드려져야 마땅한 육체적 정신적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한 것이다." (교회증언 4권 454)

과식은 「비만증」의 원인 비만증은 또 다른 병을 일으킴

1) 당뇨병: 당뇨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젊은 나이에 걸리는 제1형과 제2형이 있다.

제1형 당뇨: 비만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식으로 체지방 합성이 진행되고 체지방을 위한 「인슐린」을 과잉 분비시킨 췌장이 고장이 생겨 인슐린을 조절할 수 없어 발생한다.

제2형 당뇨: 비만증인 사람에게 축적된 체지방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기(受容器)가 기능을 잃은 것이다.

2) 심혈 관계 질환: 비만증은 지방의 과잉 축적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비롯하여 과잉 축적된 지방은 혈액 속에서 많이 엉켜서 떠돌아다니다가 혈관벽에 달라 붙기 때문에 동맥이 굳어진다. 굳어진 동맥은 혈액 흐름에 장애를 주고 이로 인하여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병이 일어난다. 심장혈관에 기름덩어리가 엉켜붙으면 관상동맥이 굳어져서 협심증이 되고 심근경색증이 된다.

뇌로 올라가는 혈관을 기름덩어리가 막으면 뇌경색증이 되거나 반신불수 혹은 전신마비를 일으키고 호흡 중추를 막으면 즉사한다.

저녁에 주로 회식을 하는데 불고기 포식은 매우 위험하다.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근래에 흔히 볼 수 있다.

3) 비만증과 관절염, 요통

사람의 체중이 키에 비례 하며, 살이 찌고 체중이 늘어나도 골격은 어느정도 고정되어 있다. 체중이 늘어나면 늘어난 체중을 받쳐주어야 하는데 골격이 연약한 상태에서 그

무게에 못이겨 물렁뼈가 무너져 요통과 관절염을 일으킨다. 과체중으로 생긴 질병은 체중을 줄이면 쉽게 치유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장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물렁뼈를 신장이 만들어 제공하지 못하여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될 수도 있다.

[통풍성 관절염]

4) 비만증과 통풍성 관절염

통풍은 혈액속에 요산이 많아져 관절에 쌓여서 생기는 병이다.

요산(尿酸)은 핵산이 분해될 때 생기는 부산물이다. 핵산은 동물성 단백질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로서 육류의 과식에서 요산을 과잉 생산하여 혈액 속에 요산 물질이 많아져서 혈류관을 통해 순환되다가 관절에 축적되면 관절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하게 일어난다.

육식을 과식하는 자가 이런 환자가 많다. 비만 환자는 체중을 먼저 줄이고 과식, 간식을 삼가고 육식도 줄여야 한다.(가능하면 끊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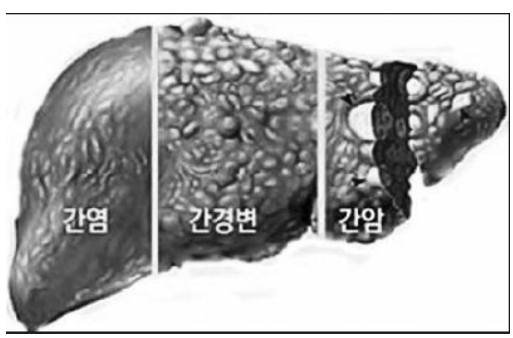
5) 비만증과 각종 사고

비만해지면 동작이 둔해져서 각종 사고를 일으킨다. 판단력과 의지력에 영향을 미쳐 사고를 대처하지 못해 일이 일어난다.

6) 비만증과 정신 질환

비만증인 사람은 저혈당이 대부분인데 정상 이하로 떨어지면(80mg%dL) 뇌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의 합성 물질이 부족하여 두뇌 작용에 장애를 받게 된다. 그런데 다가 두뇌 영양물질(비타민 B1, 당사슬-통곡류)이 조달되지 않으면 정신 분열과 정신 질환이 일어난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이 대사작용을 못하면 젖산(노폐물)이 쌓이고, 그 축적된 물질들이 지방으로 변하여 몸에 쌓인 것이 비만증인데 이미 쌓여 비만된 체중(노폐물)을 단식을 통해 줄이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통곡류, 채식(자연식)으로 바꾸어 뇌 영양 물질이 충분히 뇌에 제공되면 우울증, 정신분열(정신 질환)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7) 과식과 간(肝) 질환

현대인은 간에서 생기는 질환이 많다. 음식물이 풍부하여 과식을 하므로 과잉된 고단위 영양 물질들, 고단백, 고지방(동물성) 각종 음식물들이 소화력의 한계와 밤 늦게 섭취한 음식이 소화 과정에서 위장속에서 썩고 간은 공해물질<농약, 식품첨가물, 방부제, 중금속 물질)로 간이 지쳐 휴식과 해독을 호소하지

만 쉬지 않고 정크푸드(쓰레기 음식)를 섭취하므로 아이들도 간에 병이 들 수 밖에 없다. 간염은 어릴때부터 기초를 놓아 청년기 장년기에 간질환(간경화, 간암 등)을 앓게 된다. 현대인은 간(肝) 질환으로 사망하는 자들이 수 없이 많다. 간의 과로와 독성 물질 때문이다.

음식물의 절제와 휴식으로 간을 구제 하자!

8) 과식과 신장(콩팥)질환

특히 「간(肝)」은 영양대사의 중심이 되는 화학 공장이면, 「신장」은 대사 후의 부산물(찌꺼기)를 처리하는 기관(장기)이기 때문에 과잉 섭취된 영양소의 과부담으로 쉽게 노화가 되고 난치성 질병을 유발 시킨다.

신장 질환의 요인 중에 크게 좌우되는 식습관은 밤늦게 야식을 하고 소화가 다 되기 전에 잠을 자게 되면 잠을 잘 때는 신장이 ⅙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장에서 오래 정체되면 신사구체에 노폐물이 끼어 사구체를 막아 버린다. 그리하여 신장 기능 마비로 오는 신부전증이 일어난다.

자연의 법(건강법칙)을 범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결과를 맛보게 된다.

요인: 늦은 저녁 식사, 간식, 육식, 가공식품, 튀긴 음식, 청량음료 등

9) 과식과 비만증

과식하면 살이 쪄서 비만증이 된다. 살이 찌는 원리는 적당량을 먹으면 힘과 열로 다 소모되나 지나치게 먹으면 모두 체지방으로 합성되어 온 몸에 축적된다.

특히 지방은 양이 적으면서 부피와 무게를 짧은 기간에 늘어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비만이란 지방 덩어리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다. 지방은 동물의 저장 연료이기 때문에 생명 유지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인데, 과잉섭취된 영양소는 저장 연료로 축적되어 살이 찌는 것이다.

과식은 자기 치아로 자기 무덤을 팜

"과식은 자기 잇빨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 몸을 잘 이해 한다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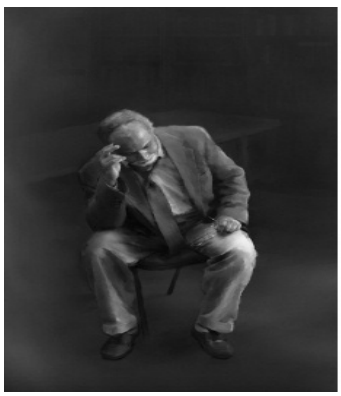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아 방종에 빠져서 과식으로 자살 행위를 계속하고, 조사(早死)하거나 여러해 동안 자신과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살게 될 것이다." (서신 17, 1985)

10) 비만증과 질병

비만증은 만병의 원인이 된다. 정상 체중에 비해 다음과 같이 발병이 증가되고 합병이 심해진다.

당뇨병(남 383, 여 372)
간경변증(남 249, 여 147)
충수염(남 223, 여 195)
담석증(남 206, 여 284)
만성신염(남 191, 여 212)
간및담낭암(남 168, 여 211)
뇌출혈(남 159, 여 162)
관상동맥질환(남 142, 여 175)
자동차사고(남 131, 여 120)
출산사고(여 162)
인간과학 1978 정상인을 100으로 책정

11) 과식과 수명



필요이상으로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대사(代射)과정에서 처리할 것이 늘어나고 노폐물(쓰레기)이 많이 생산 된다.

많이 생산된 유리기(쓰레기)는 몸의 구석 구석에서 체조직을 손상하여 병조직을 만드는데, 병조직이 많이 생기면 노화(老化)와 사망을 초래하게 된다.

하루 2식은 정신 노동하는 자에게는 매우 이상적이다. 그러나 2식을 하기 때문에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2식을 잘못하면 위장을 버리고 병체질을 만들고 결국 수명을 단축시킨다.

소식은 장수의 비결!

과식에 대한 증언의 말씀

1) 정신적, 도덕적 기능이 둔해진다.(영문시조 1887.9.1)
2) 질병의 씨(교회증언 4권 96)
3) 지력과 체력이 약해짐 (교회증언 4권 454, 455)
4) 육신적, 정신적 쇠약의 원인이 됨 (그리스도인 절제 154)
5) 건망증의 원인(서신 17, 1895)
6) 성냄, 무자비, 편벽의 원인 (치료봉사 308-310)
7) 자기 치아로 자기의 무덤을 팜 (교회증언 4권 408)
8) 두뇌로 가는 피의 불균형(HL 199)
9) 다른 기관에 부담을 줌(교회증언 4권 320)
10) 소화 기관 활력 상실, 체력 소모, 발열 상태 유발, 수족이 차짐, 허기증, 피로감, 뇌기능 마비, 정신적 육체적 의욕 상실 (교회증언 4권 320)
11) 아무리 질이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은 산기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일할 때 기계를 방해한다. (건강에 관한 권면 119)
12) 감화와 유용성에 끼치는 영향 (서신 93, 1901)

절제는 성화의 조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2,23)

"다니엘의 생애는 성화된 성품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하나의 고무적인 실례가 된다.…모든 생활 습관 가운데서 엄격한 「절제」를 행할 필요가 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식욕에 방종하려는 유혹을 물리치면 원칙이 승리하는 실례를 알게 된다.

그 실례는 비록 청년들에게는 커다란 희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신앙적 원칙을 통하여 육신의 정욕에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요구에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성화된 생애 23)

결론

1) "구세주를 바라보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 없다. 사단은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가 각 사람에게 와서 인간의 선천적인 약점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거짓말로 올무에 빠뜨리려 할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땅을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사단과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낙담하도록 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말씀하신다.

식욕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자는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도록 하라. 십자가 위에서 고뇌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짖으시는 구주를 보라. 그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셨다. 그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다." (시대의 소망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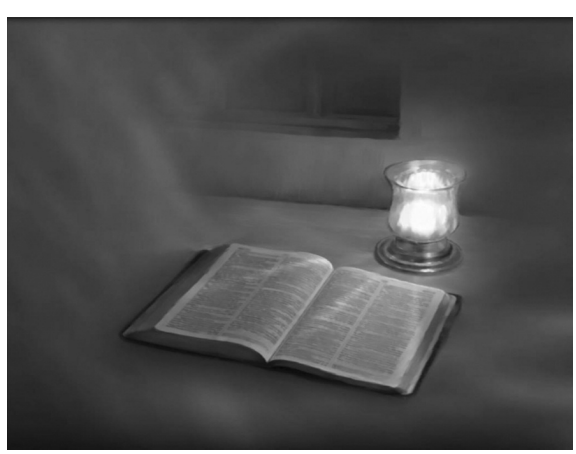
2) 불가능한 표준이 아님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살전 5:23)라고 한 말은 그가 형제들이 도달할 수 없는 표준을 목표로 삼으라고 권고한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뜻하신 것이 아닌 것을 누리도록 기원한 것도 아니었다.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하게 될 인간들은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전 9:25-27)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9,20)



마늘

영명: GARLIC
학명: Allium Sativum L.

마늘은 강한 풍미를 지닌 다년초로서 중앙 아시아나 이집트로 추정된다. 성경의 민수기 11장 5절 이하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때 애굽에서 오이, 마늘, 부추 등을 먹고 살던 것을 생각하며 정력이 쇠해졌다고 원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60cm 정도의 크기로 자라며 회농색의 위쪽을 향해 자라는 편편하고, 가늘고 긴 잎사이에서 꽃 줄기가 나와 분홍빛을 띈 백색의 작은 꽃이 핀다. 뿌리는 번식이 가능한 여러 톨들이 모여 하나의 구군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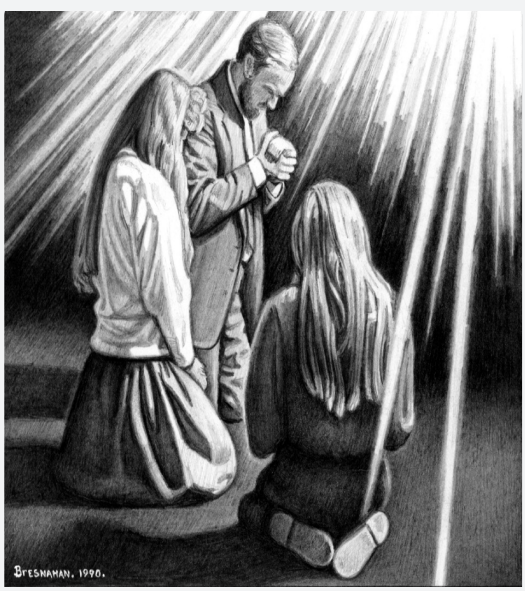
이용법

마늘은 많은 질병에 적용하여 치료제가 되며 조미료로 자주 요리에 사용되는데 비타민 A, B, C를 비롯하여 유황, 철분, 포타슘(칼륨), 칼슘,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뇨 작용과 해열 작용이 있는 좋은 약용식물이며 만성기관지염, 결핵, 천식, 유행성 감기등 폐에도 좋은 명약이다. 약간 구운 마늘이나 생마늘을 사용하는 것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데 좋은데, 이는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많이 낮추어 주기 때문이다. 단 혈압이 너무 낮아 고생하는 사람은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마늘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유형의 요리에도 없어서는 안될 기본 조미료의 하나이다. 그 강한 풍미와 향을 요리에 옮겨 놓을 뿐 아니라 그 소재가 갖는 맛과 향기가 융합하여 새로운 풍미가 나게 한다. 특히 그 이면에는 소화를 돕고 위장의 가스를 없애주며 대장에 염증도 제거하는 숨겨진 효능도 있다. 이 밖의 외용으로는 종기나 상처 치료에 쓰이며 도장부스럼, 사마귀나 티눈, 또한 피부에 생기는 반점에도 살균력이 강한 알리신이 들어 있는 마늘의 즙을 발라 좋은 효과를 본다.

마늘은 자연 항생제로 잘 알려졌으며 페니실린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알맞게 쓰는 마늘은 소아마비나 암을 예방한다고 하며 신경안정제로도 알려져 있다.

2019년 기도력

마라나타



엘렌 G. 화잇

예수의 초림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 4:4, 5.

구세주의 강림은 이미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허락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에 저들은 이 허락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 하였다. 그들은 저희의 맏아들이 구세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 허락의 성취는 지체되었다. 이 허락을 처음으로 받은 저들은 그 허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에녹의 시대로부터 다시 이 허락은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반복되어 그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였으나 그분은 강림하시지 아니하였다. 다니엘의 예언은 그분의 강림의 시기를 계시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다 바로 해석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세기가 지나갔다. 선지자의 음성은 그치었다. 압제자의 손은 이스라엘을 무겁게 눌렀으므로 많은 사람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겔 12:22)고 소리지를 지경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별들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 방대한 운행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흑암과 연기나는 풀무의 표상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것을 보여 주셨으며 저들이 사백년 간을 거기서 머무를 것임을 밝히셨다. (창 15:14) 교만한 바로의 제국은 이 말씀을 거스려서 싸웠으나 헛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출 12:41)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의 회의에서도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던 것이다. 때를 알리는 시계가 그 시각을 가리킨 바로 그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국가들의 행로와 인간의 감정이나 감화의 조류를 지도하여 구세주께서 강림하실 절호의 시기가 세상에 이르렀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사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개조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시대의 소망, 31, 37, 38)

1월 2일 (수)

베들레헴의 교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시리라" 히 9:28

그리스도 초림 당시의 사실을 참조해 보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으므로 응당 그 때의 징조를 분별하고 그 허락하신 분의 오실 것을 선언했어야 할 것이다. 선지자 미가는 그 출생지를 가리켜 말하였고 다니엘은 그분의 오실 시기를 분명하게 기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예언들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주셨으므로 설혹 저희가 깨닫지 못하여 메시야의 오심이 임박하였음을 백성들에게 전파하지 못하였다고 핑계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저희의 무지는 실로 태만의 결과인 것이었다.

모든 백성들은 세상의 구속자를 영접하는 무리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먼저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먼 나사렛의 산골로부터 베들레헴에 이른 피곤한 두 여행자는 좁은 길을 동쪽 끝까지 걸어가면서 쉴 곳과 잘 곳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저들을 맞아들이려는 문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저들은 외양간에 숙소를 정하였고 구세주께서는 거기서 탄생하셨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증거는 보이지 않았고 그 생명의 왕자를 영접하기 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이 형편을 보고 놀란 천사는 이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려던 차에 한 목자의 무리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야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의 구속자의 임하심을 사모하면서 밤에 저희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 하였다. 여기에 바로 하늘의 소식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의 사자는 갑자기 나타나서 크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 베들레헴의 놀라운 이야기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불신함과 오만함 또는 자부심을 견책하는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죗된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때의 징조를 분변치 못하며 권고하시는 날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고 경계하는가? (각시대의 대쟁투, 313~315)

1월 3일(목)

예수께서 탄생하였을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마 2:1, 2.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시므로 그분께서 하늘 거민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때 하늘 궁정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던 천사들은 그토록 심한 굴욕을 당하시는 그들의 거룩한 사령관을 보고 실망하였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천사들은 아기 구세주께서 오신다는 기별을 전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동방 박사들을 택하셨다.…

이들 박사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천한 목자들에게 전한 하늘 천사들을 감싼 빛으로 환하여진 하늘을 보았었다.…

이 빛은 멀리 보이는 빛나는 천사들의 뭉쳐진 덩어리였는데 그것은 마치 빛나는 별처럼 나타났다. 그들이 전에는 보지 못하던 크고 밝은 별이 한 징조로 하늘에 이상스럽게 나타난 것은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사들은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한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자 그 별은 어두움에 가리워져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메시야의 강림에 대한 이 큰 사건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물어 보았다.

박사들은 그곳에 메시야의 강림에 관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이 없음을 알고 놀랐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의 큰 사건을 예상하여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대하여 놀랐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세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하여 그랬던 것처럼 예언의 빛을 보기를 싫어하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증거들을 받기를 싫어한다. 그들은 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덧없으나 의기양양한 통치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전향하면서 교회가 덧없는 번영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들도 덧없는 황금 시대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리뷰 앤드 헤랄드, 1871. 12. 24)

1월 4일(금)

재림의 소망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이렇듯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추종자들의 희망이었던 것이다. 특히 구주께서 감람산 위에서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앞길을 밝혀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기쁨과 희망으로써 충만시켰나니 어떠한 비애나 어떠한 시련도 이것을 없이하지 못하였다. 박해와 시련의 한 가운데 있어서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은 "복된 소망"이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주의 재림을 보기를 희망하던 저희 사랑하는 이를 장사 지내고 슬픔에 차있을 때에 그들의 선생인 바울은 재림시에 있을 부활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6~18)…

또 허다한 성도의 순교자들은 옥중에서 혹은 화형주, 교수대 위에서 진리의 증언을 말하고 신앙과 희망을 표시 하였다고 전하거니와 그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증하였고 따라서 재림 시에 자기가 부활할 것도 확신 하였으며 사망을 경히 여기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Daniel T. Taylor, 지상의 그리스도의 통치: 또는, 모든 시대를 통한 교회의 소리, 33)

그들은 미구에 자유로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하여 쾌히 무덤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주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사", "거룩한 나라에 인도하여 드리실 때" 를 기다린 것이다. 왈덴스 교인들도 역시 이와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또 위클립으로 말하여도 구주의 나타나심을 교회의 희망으로 기다리고 사모하였다.(각시대의 대쟁투, 302, 303)

바위들이 험준한 밧모섬에 귀양을 간 사랑하는 제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그는 응답하기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하였거니와 이 말을 오랫 동안 유리 표박해 온 교회의 기도이기도 하다. (각시대의 대쟁투, 302)

1월 5일(안)

성경의 요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 19:25.

성경 가운데 나타난 가장 엄숙하고도 가장 기쁨을 주는 진리는 구원의 완성인 그리스도 재림의 교리이다. 오랫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두루 다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기뻐 뛰기를 마지 않게하는 희망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의 결과로 내어 쫓김을 당한 자를 다시 본향으로 데려 가신다는 재림의 약속이다. 원래 그리스도 재림의 교리는 성경의 근본적 주제가 되는 것이니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내어쫓긴 때로부터 신앙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사단을 멸하시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킬 언약의 구주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에덴 낙원에 거하던 시조 아담으로 부터 7대손 에녹—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던 그 에녹은 오래 후에 있을 그리스도 재림의 광경을 계시로 보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유 14, 15)고 하였다. 또 족장 욥도 그 괴로움의 밤에 자기의 확고한 신념을 말하여 가로되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각시대의 대쟁투 , 229)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분별력을 계발하여 그대가 영원한 사물을 분별하고 진리의 빛으로 그대 자신의 잘못들이 실상대로 그대에게 나타나며 그대가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 악 대신에 쓴 열매가 영생에 고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란다.

그대의 가련하고 교만하며 스스로 의롭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며 그대의 죄 가운데서 파괴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발 아래서 아주 낮추어야 한다. 준비하는 사업에 그대 자신을 헌신 하도록 하라. 그대가 진정으로 "나의 구주께서는 살아 계시며 그가 살아 계시므로 나도 살리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쉬지 말라.

만일 그대가 하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하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그대들에게 탄원하노니 이 일에 실수 하지 말라. 영원한 관심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교회증언 2권, 88)

1월 6일(일)

개척자들의 신앙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전 15:26.

루터는 "나는 심판의 날이 앞으로 삼백 년이 다 차기 전에 올 것으로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세상을 더 오래 참으려고 아니하시고 더 참을 수도 없으실 것이다." "이 가증한 나라가 전복될 큰 날은 가까와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Daniel T. Taylor, 33)

멜랑톤은 "이 늙은 세상은 그 끝이 오래 남지 않았다" 고 말하였고 칼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모든 사건들 중에 가장 기쁜 사건으로 주저함 없이 고대하라." "모든 충실한 신도의 가족들은 그 날을 기대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우리는 우리 주께서 자기 나라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그 큰 날이 밝아 오는 것을 볼 때까지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고 하였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하늘에 가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시되 속히 돌아 오실 것을 안다."고 스콧틀랜드의 개척자 낙스는 말하였다. 진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버린 리들레이와 라티머도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리들레이는 "나는 이것을 믿는고로 말하거니와 세상은 의심없이 종국에 가까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요한과 같이 충심으로 우리 구주를 향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야 한다"고 기록하였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은 나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다."라고 박스터는 말하였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즐거워하고 그 복된 소망을 사모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성이요 신앙이다." "사망이 부활할 때에 멸절될 최후의 원수라고 할진대 우리는 이것을 정복할 그리스도의 재림을 참으로 열렬하게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 날이야말로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려야 할 것이니 이는 저희의 구속을 위한 모든 사업과 저희의 영혼을 위한 모든 멸망과 노력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 주여 이 복된 날을 속히 오게 하소서" 라는 말은 사도시대의 교회와 광야의 교회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 같이 소원하던 바이었다. (각시대의 대쟁투, 303, 304)

1월 7일(월)

역사의 열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사 21:11, 12.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이해하는 일은 다가오는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파헤쳐 미래의 모든 교훈들을 설명하는 열쇠다.(복음전도, 220)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는 참된 파수꾼의 음성은 지금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중대한 시기에 처해 있으므로 나팔을 뚜렷하게 불어야 한다.

예언의 진리들은 모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그 진리들을 연구하면 그것들은 실제적인 그리스도교의 진리로써 한 덩어리를 이룬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를 위해 일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의 소망이다. 이 소망은 우리의 모든 말과 사업 그리고 모든 교제와 친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인자의 재림은 사람들이 언제나 유의해야 할 놀라운 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설교에서 제거할 수 없는 주제가 여기에 있다. 영원한 실제가 마음의 눈에 보여야 한다. 그러면 세상의 매력은 모두가 헛되고 무익하게 드러날 것이다. 세상의 허영과 자랑과 부와 명예와 향락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순례자요 나그네들이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활기찬 행동을 고취시키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깊고도 거룩한 생애를 할 것인가. 그리하여 영원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와 세상 사이의 한계는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진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 되어야 한다. (복음전도, 218~220)

1월 8일(화)

평행하는 실망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약 5:11.

일반인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사람들의 견해와 전설 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가르침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알려주신 큰 사건에 관하여 그 일부분 밖에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구주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의 제자들로 말할지라도 역시 그리하였던 것이다. 저들은 메시야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를 통치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을지라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들은 세상에 나면서부터 그 마음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도록 마련되었으므로 예언의 자세한 기록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한 제자들의 경험은 그분의 재림하시는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경험의 좋은 대조가 된다.

초대의 제자들과 같이 윌리암 밀러와 그 동조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전하는 기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오랫 동안을 두고 교회 안에 이루어진 오류들은 저들로 하여금 예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저희에게 맡기신 기별을 전하기는 하면서도 오히려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실망을 당하게 되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초대의 제자들에게와 같이 그 시련의 시간이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일지라도 후세에 이르러서는 명백하게 되어버릴 것이었다. 저들이 만일 "주께서 나중에 어떻게 행하신 것" 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으면 그 시련이 저희들의 잘못에 기인된 것이었을지라도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꾸준히 성취되고 있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 라고 한 성경 말씀을 실지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이었다. (각시대의 대쟁투, 345, 351, 352, 354)

1월 9일(수)

겸손한 사람들이 기별을 전함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벧후 1:19.

원래 이 기별(계 14:6, 7)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써 선포될 것이었다. 복음의 선포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다. 물론 천사가 이것을 지도할 책임을 담당하기는 하였지마는 사실상 복음의 선전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말미암아 시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격려하심과 그분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순종하는 신실한 종들은 이 경고를 세상에 전파할 것이다. 저들은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벧후 1:19)과 같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언이 더욱 확실하여지는 것을 주목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감추인 보물보다도 더욱 값진 것으로 찾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잠 3:14)게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그 나라의 큰 일들을 보이셨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시 25:14)

재림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일에 참가한 사람들은 학구적인 신학자들이 아니었다. 그 학구적인 신학자들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경 연구에 종사하는 충실한 파수꾼이었던들 그들은 오늘날이 바로 위기일발의 험난한 시기임을 반드시 깨달았을 것이다. 예언은 장차 일어날 사건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별은 더욱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요 12:35)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피하거나 가까이에 있는 빛을 구하지 않는 자는 암흑 가운데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고 구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는 자는 그 심중에 하늘로부터 비쳐오는 어떠한 별을 보게 될 것이요 이로써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312)

1월 10일(목)

진리가 승리할 것임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치 아니하리니" 계 10:5, 6.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선포하는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마지막 때에 주어졌으며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딛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기별이 먼 땅에까지 전해질 것이며 대양을 건널 것이며 바다의 섬들이 그 마지막 기별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을 것을 나타낸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계 10:5, 6)한 이 기별은 예언적 기간의 끝을 선포한다. 1844년에 우리는 주님의 기별을 뵙기를 기대했던 이들의 실망이 그분의 나타나심을 아주 열렬히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참으로 큰 쓰라림이었다. 이 실망을 당할 것이 주님의 명령 가운데 나타나 있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 않고는 어떤 구름도 교회를 덮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지 않고는 어떤 반대 세력의 하나도 하나님의 사업을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대로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암흑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장차 일어날 일을 선지자들의 선언 가운데 나타내셨다. 세상 역사에 있어서 지정된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섭리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는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취되고 입증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분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대리자들과 연합한, 사단의 대리자들이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 진리는 하나님의 영감과 인도하심을 받으므로 때때로 그 위에 어두움이 덮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살 것이며 계속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품성가운데 예증된 율법이다. 그것을 거스려 행해진 기만, 거짓을 옹호하기 위한 모든 책략, 사단의 대리자들에 의해 꾸며진 모든 잘못은 마침내 영원히 꺾여질 것이며, 진리는 한 낮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승리할 것이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온 세상은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질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2권, 107, 108)

1월 11일(금)

우리 주님의 돌아오심을 촉진함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롬 9:28.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 말씀하셨다. 이 예언은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 시대의 차고 넘치던 죄악이 현대에서 재현되고 있다. 복음 전파에 관한 예언도 그와 같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바울은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골 1:23) 전파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그와 같이 인자가 오시기 전인 지금도 영원한 복음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계 14:16) 전파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행 17:31)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 하셨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므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에 달려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벧후 3:12 상단)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 633, 634)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죄와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틀어박혀 있도록 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편만한 불신과 속된 마음 부정함과 다툼 때문이다.

우리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오랜 세월동안 이 세상에 머물러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 자신의 그릇된 행로의 결과를 인해 하나님을 비난함으로 죄를 더욱 가중시키지 않아야 한다. (복음전도, 696)

1월 12일(안)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 18:1.

셋째 천사가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이는 온 세계에 보급된 비교할 것 없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업을 예언한 것이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재림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빛나는 표시였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 각 선교지방에 전파되었다. 그리하여 어떤 나라에서는 16세기 종교 개혁 이래 가장 깊은 종교적 흥미가 환기되었다. 그러나 세째천사의 최후의 경고 아래 있을 큰 운동은 이보다도 훨씬 더 모든 사람의 심령을 움직일 흥미의 촛점이 될 것이다.

복음의 큰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보다 못하지 아니한 큰 능력의 나타남으로 마치게 될 것인 바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은 또 늦은 비가 내림으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그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곳에서 저 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신자들에게는 이적을 행함과 질병을 고침과 많은 징조와 기사가 따를 것이다.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를 행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눈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도 할 것이다. 이리하여 세상의 주민들은 그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교인들로 말미암아 배포된 서적들은 그 감화를 주어 왔으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오히려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복종하는 데 장애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광명한 광선이 각처에 전파되고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을 결박한 줄을 끊을 것이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는 저들을 묶어 두기에 무력할 것이다. 진리는 아무 다른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며 비록 많은 사람들이 결속하여 반대할지라도 오히려 많은 자는 주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611, 612)

1월 13일(일)

주께서 영원히 왕노릇 하심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 11:15.

의로운 통치로 인도할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기자들로 하여금 그 장엄하고 숭고함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의 권능과 위엄을 노래하되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함이여 여호와 앞에 할지로다. 대저 저가 임하심이여 임하사 땅을 판단하리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심이여 그 성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하였다. (시 96:11,13)

선지자 이사야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나라"(사 25:8)

구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시려 할 때에 다시 임하시겠다는 보증으로 슬퍼하는 그들을 위로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또한 감람산 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떠돌던 천사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되풀이 하여 말하였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 (행 1:11) 또한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라"(살전 4:16)고 말하였으며 밧모섬의 선지자 요한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계 1:7)라고 말하였다.

그분의 재림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행 3:21)에 있을 것이니 그 때에는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악의 지배는 깨어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계 11:15) (각시대의 대쟁투, 300, 301)

1월 14일(월)

엘리야의 예언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 4:5, 6.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해 엘리야의 정신으로 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길을 예비해야 하는 사람들도 성실한 엘리야로 묘사되었다. (교회증언 3권, 62)

침례 요한의 사업과, 말세에 사람들을 그들의 무관심에서 일깨우기 위해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사업은 많은 관점에서 동일하다. 그 사업은 이 시대 안에 성취 되어야 할 사업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의(義)안에서 심판하러 두번째로 오실 것이다. (남부 파수꾼, 1905. 3. 21)

요한은 친구들과 생애의 쾌락들과 분리되었다. 약대의 털로 짠 그의 소박한 옷은 유대의 제사장들과 일반 사람들의 사치와 과시에 대한 끊임없는 견책이었다. 순수한 채소, 메뚜기와 석청으로 된 그의 음식물은 그 당시 도처에 편만했던 식욕의 방종과 폭식에 견책이 되었다. 개혁의 큰 주제는 세상을 들끓게 해야 하고 대중의 마음은 움직여져야 한다. 우상 숭배와 폭식 그리고 의복과 다른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방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절제는 범사에 그 기별과 연관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필요되는 극기와 겸손 그리고 절제는 그들과 대조적으로 이 타락한 시대에 살면서 방종하고 건강을 해치는 습관에 젖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손이 육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듯이 건강 개혁도 세째 천사의 기별과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함을 나타내셨다. (교회증언 3권, 62)

침례 요한이 그들의 관심을 십계명으로 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뚜렷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은 기별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계 14:7)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의 침례 요한의 특성을 이루었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해 분투 노력해야 한다. (본교회 성경주석 4권, 1184)

1월 15일(화)

예수님을 중심으로 높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도다" 계 22:16.

마지막 시대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임해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위험을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예언이 나타낸 장엄한 광경들이 언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지 않도록 하라. 만일 우리의 신자들이 반쯤만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논쟁적인 태도를 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가 말하고 계시록이 말하는 진리가 제시되든지 예수님을 모든 소망의 중심으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로 높이도록 하라.

우리는 진리를 찾는 일에 충분히 깊이 몰두하지 않는다. 현대 진리를 믿는 모든 영혼은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하도록 요구를 받을 곳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자들, 통치자들 그리고 세상의 위인들 앞에 서도록 부름받을 것인데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개심한 남녀들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세상의 위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한 순간 동안에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그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다. 우주는 지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쟁투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희생을 치루시고 모든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 천사들은 누가 이 기회를 이용할 것인가를 참으로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의 기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될 때 그들은 그것에 반대하여 일어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 그것을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만일 그것이 이 시험에 견디지 못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매일 좋은 것들로 잔치를 열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열어 놓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118, 119)

1월 16일(수)

세상은 들판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마 28:19.

1874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안 나는 감명적인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캘리포니아의 몇몇 형제들이 다가오는 계절 동안 가장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내가 전에 꿈 속에서 자주 보았던 한 젊은이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말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듣다가 신중하고도 권위있는 확신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회지들과 촌락들은 주님의 포도원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들은 경고의 기별을 들어야 한다. 진리의 원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돌이켜 오류로 향해 가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대들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려야 한다."

"그대가 수고한 결과를 즉시로 볼 수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담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를 그대의 모본으로 삼으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많았으나 따르는 자들은 별로 없었다."

그 사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대는 이 시대의 사업에 대해 너무 제한된 생각을 품고 있다. 그대는 그대가 품에 안을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을 계속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대는 더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대는 등불을 말아래나 책상 밑에 감추어 둘 것이 아니라 등잔 위에 두어 집안의 모든 것을 비추도록 해야 한다. 그대의 집은 세상이다.

많은 나라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갖고 계신 빛이 비추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대의 믿음은 제한되어 버렸고, 너무나 적다. 사업에 대한 그대의 개념은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나아가라. 만일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불가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사명감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빛이 세상을 시험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 기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기심없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지 않으면 그 빛은 가치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엘렌 지. 화잇 자서전, 208~210)

1월 17일(목)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이름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눅 21:26.

오늘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수 많은 도시들이 머지 않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있다면 얼마나 다행할 것인가!…

얼마 전에 내게는 아주 감명깊은 한 장면이 지나갔다. 나는 한 거대한 불덩어리가 몇 군데 아름다운 저택에 떨어져 순식간에 그것들을 태워버리는 광경을 보았다. 나는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리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이를 줄은 몰랐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당신들은 그걸 알고 있었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나는 곳곳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

머지 않아 무서운 환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을 환란이 나라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보좌를 하늘에 마련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을 섬기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연합해서 전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우리가 그분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능력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이르고 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인한 파괴는 세상의 종말까지 증가할 환란의 때가 매우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동요되고 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들은 거의 성취되었다.…

지난 금요일 아침 잠에서 깨기 직전에 내게는 매우 인상적인 광경이 제시되었다. 나는 잠에서 깬 듯했으나 집에 있지는 않았다. 나는 창문을 통하여 무서운 대 화재를 볼 수 있었다. 큰 불덩어리들이 집들 위에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들 불덩어리들로 부터 불같은 화살이 날으고 있었다. 타오르는 불길은 저지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 곳이 불타고 있었다. 사람들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구호봉사, 136, 137)

여러 나라의 도시들이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나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원수의 기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분노의 날에 대비하여 분노를 쌓을 동안에도 회개하고 개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전도, 27)

1월 18일(금)

더욱 훌륭하고 고상한 길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사1:16, 17.

무지와 쾌락을 사랑함과 참된 습관과 부패하게 하는 성령, 육체 그리고 정신이 세상을 도덕적 문둥병으로 충만하게 하고 있다. (재림신도의 가정, 329)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다. 그들은 고통, 빈곤, 불신, 낙담으로 억눌려 있다. 갖가지 질병이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괴롭힌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위안을 찾고자 열망하고 있다. 그리고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멸망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강한 욕망과 쾌락에서 그것을 구하도록 한다. 그는 그들의 입술에서 재로 변할 소돔의 사과들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 (복음전도, 569)

세상 형편에 대한 두려운 양상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각처에 부도덕이 충만해 있다. 방탕함은 이 시대의 특별한 죄이다. 부도덕이 지금과 같이 기형적인 머리를 쳐든 적은 결코 없었다. 이 많은 죄악은 다만 불신자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정이 그랬으면 참으로 좋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남녀들이 죄를 짓고 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사단 자신이 그런 것처럼 이 사건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들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오래도록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부정하여지고 상상력이 부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들의 생각을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에 거하게 하는 것은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의 흐름을 돌이켜서 쏟아지는 물을 폭포수 위로 올려 보내는 것 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욕을 억제하고 원칙의 지배를 받을 줄 알아야 한다.

만일 음란, 퇴폐, 간음, 범죄, 살인 등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지배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행하는 시대적인 현상이라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밀접한 연합을 가지며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무리들이 보다 훌륭하고 고상한 길을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재림신도의 가정, 328, 329)

1월 19일(안)

큰 소리로 외칠 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왔음이니라" 롬 13:11.

마치 도둑이 밤에 소리도 없이 다가오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더 이상 자지 않고 깨어 기다리게 되기를 바란다. 진리는 머지 않아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그 진리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시간은 짧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것이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오순절에 이루었던 것처럼 하루에 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초청을 무심히 지나쳐 버린다. 그들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 왔으니 계속 거대한 장애물들이 그들의 앞길을 방해하며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통하여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빛가운데로 행하게 될 것이다.

거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장애물들이 좁은 길에 솟아 있었고 거치는 돌들이 길에 나타났었으나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이다. 거짓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하여 쳐 둔 울타리는 무가치한 것이 될 것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걸어나와 빛을 전파하고자 일할 것이다. 하늘의 지혜가 인간 대리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이리하여 용기 충천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비추고 자신의 거룩한 힘을 악과의 싸움에 바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잃었던 진주들을 도로 찾게 될 것이다.…

큰 소리로 외치는 동안에 존귀하신 주님의 도움을 받은 교회는 구원의 지식을 너무나 풍성하게 보급하므로 빛이 모든 도시와 촌락에 전파될 것이다. 세상은 구원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렬하고 적극적인 일꾼들에게 너무나 풍성한 성공을 주시므로 현대 진리의 빛은 모든 곳에서 빛날 것이다. (복음전도, 692~694)

1월 20일(일)

충실한 자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구하는 가운데 인간의 지혜 이상의 것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불법적인 요소에 대항하는 우리의 표준을 높이실 것이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고수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반대하는 요소 ,곧 사단의 편에 있는 다른 정신이 개입하고자 계속적으로 숨은 감화력을 작용시킬 때 그 어려움은 더욱 심해진다. 박해가 없을 때에는 우리의 대열에 들어와서 외관상으로 건전한 그리스도인 생애를 하지만 박해가 일어나면 우리를 떠나갈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위기에 처하면 그들의 마음에 감화를 끼쳐온 그럴듯한 이름의 세력을 알게 될 것이다. 사단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각양각색의 함정을 마련 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이 효능을 잃게 되면, 교회는 맹렬한 시련으로 체질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심하게 마귀의 유혹하는 정신과 교훈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강하게 되는 대신 참 포도나무의 살아있는 가지가 아님이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 버릴 때 참되게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그들은 강한 악의 흐름에 떠내려 갈 것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왕자의 깃발 아래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은 충성을 포기할 것인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실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권세자보다 더욱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께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멸시를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숨기고 계명에 대한 경외심을 낮출 것이다. 그러나 충실한 자들은 그 탁월한 진리들을 더욱 열렬히 높일 것이다. 우리는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권면을 구하며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바쳐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가려뽑은 기별 2권, 368, 369)

1월 21일(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노력함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눅 15:4.

우리는 한 영혼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 인도된 한 영혼은 도덕적 어둠을 뚫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늘의 빛을 주위에 비추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떠나셨다면 우리는 그보다 적은 노력을 하고서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지 않는 것은 거룩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 곧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세상의 사방에 경종을 울리라. 주님의 날이 가까왔으며 매우 촉박함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아무도 경고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하라.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진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곳에 있게 될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야비한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진리를 받아 들였으므로 그 진리를 그들에게 전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종말이 가까왔다.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왕래하는 일은 머지 않아 여러가지 위험으로 방해를 받을 것이다. 주님의 사자들이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해 온갖 조치가 취해질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사업을 정면으로 공정하게 바라보고 영적 싸움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전진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에 의하여 암흑의 세력들이 맹렬한 세력으로 몰래 일하고 있으며 사단은 이리가 먹이를 노리듯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야할 경고가 있으며,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나 머지않아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 빛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지도자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일하게 하시고 끈기있고 참을성있게 승리를 얻도록 하신다. (교회증언 6권, 22)

비록 죄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우리 생애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고상한 교육은 봉사하는데 있다. 또한 죗된 인성의 제한들로 말미암아 방해 받지 않는 미래의 상태에서도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고상한 교육은 봉사하는 데서 발견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리라, 370)

1월 22일(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계 1:3.

교회들을 부흥시킬 기별이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을 전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들을 필요한 설명서와 함께 작은 책자들로 인쇄하여 온 세상에 보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우리 백성들은 빛을 더욱 분명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117)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다니엘서와 성령으로 영감을 받은 진리를 이끌어 낼 것이다. 그들은 억제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취를 감췄던 신비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의 입술이 열릴 것이다.

많은 예언들이 신속히 잇달아서 성취되려 하고 있다. 능력의 모든 요소가 일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며 새로운 생애에 옛적의 투쟁이 환기될 것이고 위험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에워쌀 것이다. 긴박감이 인간 가족을 사로잡고 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 침투하고 있다.

계시록을 다니엘서와 관련을 지어 연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앙적인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오늘날 알아야 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식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고자 열망하는 진리이다.

이 세상 역사상의 종말이 우리에게 가까이 이를 때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관련된 예언들을 연구해야 한다. 신약 성서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진리들로 가득 차 있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들이 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은데 대해 변명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116, 117)

1월 23일(수)

참지 못함과 박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요 15:20.

사단이 존재하고 그리스도 교회가 활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박해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암흑의 군대의 대항을 받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악한 천사들은 저들의 소유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감화로 빼앗기는 바 될 때에 놀라 저들을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모범으로 마음에 감화를 받은 악인들은 악한 천사들과 연합하여 매혹적인 시험으로 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때 압제적 권력은 양심적인 사람들을 강제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람의 중보자로 하늘 성소에 머물러 계실 때 까지는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과 사람들 위에 미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은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까지는 나라의 법률들을 통제하고 있다. 만일 이 법률들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오늘날 세상은 현재의 형편보다 훨씬 악화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지배자들 중의 많은 사람이 사단의 대리자로 활동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역시 유력한 지도자들 중에 당신의 대리자를 두고 계시다. 원수 마귀는 자기의 종들을 충동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방해할 방법을 제안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은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를 받아서 단호한 논증을 가지고 그런 제의에 반대한다. 이 모양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강력한 악의 조류를 제지할 것이다.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반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억제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가 전하여 질 때에 그것은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지도자들의 주목을 끌 것이다. 그리하여 저희들 가운데 더러는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환란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설 자가 있을 것이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욜 2:23)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행 2:17, 21)

복음의 큰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못하지 아니한 큰 능력의 나타남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610, 611)

1월 24일(목)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용과 그의 천사들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간주하며 배도한 교회들을 지배하여 왔다. 그러나 여기에 사단의 최상권을 반대하는 적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그가 만일 그들을 세상에서 없앨 수 있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그가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그는 머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기 위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선동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유일한 방패는 기도가 될 것이다.

에스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쓰라린 경험은 그 시대만 적용되는 경험이 아니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종말까지 각 시대를 내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 12:17) 오늘날 지상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취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단의 분노는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증가될 것이며 기만하고 멸망시키는 그의 사업은 환란의 때에 절정을 이룰 것이다. (믿음으로 살리라, 289)

사단은 기만하기 위해 이적을 행할 것이며 자기 능력을 최상의 것으로 치켜 올릴 것이다. 교회는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시온의 죄인들이 체질을 당하여 떨어져 나가는 동안 가라지가 알곡에서 떨어져 나가는 동안에도 교회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서운 시련이 될지라도 그 일은 일어나야 한다. 어린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의 말로 승리를 거두어 온 사람들만이 죄의 얼룩이나 흠이 없고 그 입에 교활함이 없는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들로 나타날 것이다. (성경주석 7권, 911)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드러운 염려로 당신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며, 기억책을 펴놓으시고, 당신께서 돌보시는 자녀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살리라, 280)

1월 25일(금)

거짓된 신앙 부흥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딤후 3:1, 2, 5.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 이래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 자녀들의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 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특별한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원수 사단은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는 그의 기만적인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여서 소위 큰 부흥이 일어난 듯이 일반에게 생각되도록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볼 때에 그 실상은 전연 다른 신의 공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기뻐날 뛸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은 종교적 가면 아래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 교계에 확장하기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과거 반세기 동안에 일어난 신앙 부흥의 대부분은 다소간에 이와 같은 세력이 가세되어 있었는데 미래에는 더욱 광범위한 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거기에는 감정적인 흥분이 있고 진리와 오류가 뒤섞이므로 그것은 그릇 인도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그러나 아무도 기만당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비추어 보면 이런 운동들의 본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무릇 사람들이 성경의 증거를 등한히 하고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영혼을 시험하는 진리에서 돌아서는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마 7:16)라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법칙에 의하더라도 이런 운동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하권, 251, 252)

1월 26일(안)

외람되고 부주의하게 지체시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 16:15.

악한 종은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 않았다. 그러나 행동과 말로써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주께서 빨리 오시리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그의 감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외람되고 부주의하게 지체하도록 하였다. 그는 세상과 섞였다. 그것은 두려운 연합이었다. 그는 세상과 같이 함정에 빠져 있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계 3:3)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짓 교사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저들은 "평화와 안전" 을 말하고 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의 제사장들과 교사들처럼 저들은 교회가 세속적 번영과 영광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들은 시대의 징조들이 이것을 예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영감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임하리라"(살전 5:3)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날은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방탕함과 경건치 못한 쾌락으로 가득찬 세상은 속세의 안전함 가운데서 잠들어 있다. 사람들은 주의 오심을 멀리 지체시키고 있다. 그들은 경고를 비웃는다. 그들은 거만하게 자랑하기를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고 말한다. (벧후 3:4, 사 56:12) 우리는 향락을 사랑함에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신다. (계 16:15)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하고 묻는 그때에 징조들은 성취되고 있다.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에 홀연히 멸망이 이른다. 진리를 경멸하는 자와 거절하는자가 건방지게 될 때, 돈을 버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의 과정이 원칙을 상관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시대의 소망, 635)

1월 27일(일)

얻어야 할 하늘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눅 21:36.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령은 서서이 그러나 확실히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세상의 형편은 위태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왔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매일의 신문은 가까운 장래에 있을 두려운 싸움의 징조들로 가득하다. 대담한 도적질이 빈번히 발생한다. 파업이 흔해진다. 강도와 살인이 거의 모든 사람에 의해 자행된다. 마귀들린 사람들이 남녀와 어린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 사람들은 악행에 미쳐 있으며 각양각색의 죄악이 편만해 있다. (교회증언 9권, 11)

세상의 모든 일이 동요하고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올 사건들은 미리 그늘을 던지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재난이 꼬리를 물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갖 가지 살인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신속히 자기들의 선택한 깃발 아래 정렬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끊임 없이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지켜보면서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최초로 크게 배도한 대장의 대열로 정렬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피해야 할 지옥과 얻어야 할 하늘이 있다고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

위기가 서서이 몰래 다가오고 있다. 태양은 언제나 처럼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에서 빛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신앙인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다투고 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의 소굴에 몰려들고 있다. 최고의 흥분이 편만하고 있으나 은혜의 시간은 신속히 마치려 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은 영원히 결정되려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감람산으로부터 수 세기를 통하여 엄숙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시대의 소망, 636)

1월 28일(월)

깨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하리라" 눅 12:37.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경고를 하셨다. 저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하였다. 노아에게 "너와 네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는 말씀이 이르자 노아는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다. 롯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기별이 임하자 롯은 자신을 하늘의 사자의 보호에 맡겨 구원을 얻었다. (창 7:1; 19:14)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다가올 멸망의 징조를 지켜보다가 그 도성에서 도망한 자들은 면하였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발하여졌음으로 그 경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눅 12:37)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는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한다. 그것은 그분의 자비의 초청을 거절하는 큰 죄를 그들에게 일깨워 준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깨어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한다. 그들은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이들은 주의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신실하고 지혜있는 종들이다. (눅 12:42) 그들은 오늘날을 위한 가장 적절한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알맞는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경고를 발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634)

1월 29일(화)

도처에 있는 재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습 2:3.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산 자들이 돌아서서 복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보낸 은혜로운 기별을 조롱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유한한 지지력과 또한 근거없는 이론을 신뢰하는 광경을 보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고통의 시험을 받고 사망에 직면하게 될 때에 그들이 품고 있던 이와 같은 모든 오류는 햇빛에 서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늘의 은혜의 호소를 거부한 자의 관 곁에 서 있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기 멸망을 당한 한 영혼이 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최고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었고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사단에게 복종시켜 인간의 헛된 철학의 올무에 걸려 마귀의 장난감이 된 자로다 라고 말하기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위대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자가 하여야 할 일이 있다.

청년들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폭풍우가 불어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포를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온 땅을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수 많은 배가 깊은 바다속에 침몰될 것이요 해군들은 물에 빠지고 인간의 생명은 한번에 수백만명씩 희생을 당할 것이다. 뜻하지 않은 때에 여기 저기서 불이 일어날 것인데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지상의 훌륭한 건물들은 맹렬한 불길로 휩쓸어질 것이다. 철도 사고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끝은 가깝다.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오! 우리는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선지자는 말하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습 2:3)고 하였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88~90)

1월 30일(수)

영혼을 위한 중재기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 18:19.

나는 베틀크릭에서 개심하지 않은 사람들과 암흑 가운데 처하여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 정해 놓고 기도회를 열었던 것을 기억한다. 매 경우마다 하늘의 지혜가 이런 노력들와 협력하였으며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 (가려뽑은 기별, 32, 1893년)

만일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있다면 교인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 일하도록 작은 그룹들을 조직하라. 만일 한 곳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둘 혹은 셋 밖에 없다면 그들만으로 일하는 단체를 형성하라.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서로 격려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서로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힘과 용기를 얻음으로 결속의 띠가 풀리지 않도록 하라. 그들은 성급한 말을 하지 말고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피차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와 같은 관용과 인내를 나타내도록 하라.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가운데 그들의 단체 밖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도록 하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수효는 증가할 것이다. (교회증언 7권, 22)

우리 나라에 죄악이 편만하고 그와 같은 죄악 상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성취해야 할 자국의 사업이 있는 탄원의 소리가 들리는데도 왜 그토록 외방선교에 열심을 내는가? 그것은 우리의 선교 지역은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대답한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세상 끝까지 증거하라고 지시하셨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여러 나라들을 지나며 가깝고 먼 곳들에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고, 복음을 곳곳마다 신속히 전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비된 일이 있었다. 구주의 약속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뜻과 소원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권면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우둔한 학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편지, 1893년)

1월 31일(목)

울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렘 8:20.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종말이 가까왔음을 분명히 알려 주는 시대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경시하지 말도록 호소한다. 오,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쓰라린 탄식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건이 심판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은 모든 방종과 교만,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 깨어 기도할 때이다. 지금 낭비하고 있는 많은 귀중한 시간들을 명상과 기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공언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완수하는 대신에 제 멋대로 행하고 있다. 그들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나가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못할 것이다. 나는 이들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그대의 헛된 생각과 불친절한 말 이기적인 행위는 하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벨사살 왕이 우상의 잔치를 베풀었을 때 참석했던 천사들이 그대가 구주를 모독할 때 그대의 곁에 서 있다. 그대가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고 그분께 공공연하게 욕을 돌리는 것을 슬퍼하면서 그들은 되돌아 간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대관식 날에 흠이나 주름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충성한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자기들을 통치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표를 지닌, 구원받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가시관을 쓰셨던 머리에 영광의 왕관이 씌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날에 구속받은 자들은 하늘 아버지와 당신의 아들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하늘 천사들은 금거문고를 켜면서 그들의 왕과 그분의 승리의 전리품들, 곧 어린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을 환영할 것이다. 승리의 노래가 온 하늘에 울려퍼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구속하신 자들, 즉 당신의 고통과 자아 희생의 사명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품들을 데리고 하늘 궁정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리뷰 앤드 헤랄드, 1904, 11, 24)

2월 1일(금)

최고의 순간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 3:2.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러 산에 강림하고자 하실 때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타는 영광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그 산에 접근하는 일이 금지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려고 선택한 장소를 구별하시기 위해 이와 같이 당신께서 능력을 나타내셨다면 이 신성한 법령들을 집행하시러 오실 때에 그분의 심판 광경은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은 사람들은 최후의 징벌의 큰 날에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은 소멸하는 불 같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온 세상은 그분의 임재의 두려운 빛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창조된 이래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적은 결코 없었다.… 자연계가 가장 두렵게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나팔소리처럼 들려왔다. 산은 기슭에서 꼭대기까지 흔들렸고 두려움으로 창백해지고 떠는 이스라엘 무리는 땅에 엎드렸다. 음성으로 땅을 흔드신 분께서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선언하셨다.… 모세가 증거의 판을 받았던 산에 머무시던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왔을 때 죄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을 영화롭게 한 그 빛에 견딜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하늘 군대에 둘러싸여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과 그분의 속죄를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러 나타나실 때에 범법자들은 그분을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골 3:6)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공포와 멸망을 가져오는 그 날이 순종한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져올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339~341)

2월 2일(안)

높은 표준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 20:26.

또한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성소에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은 채로도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난의 때에 보호를 받는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반사해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요구되는 준비는 등한히 하면서도 자신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고 그분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되기 위하여 "늦은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피난처를 찾지 못함을 보았는지.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였으므로 모든 것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되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온전한 진리에 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지 못한 자들은 재앙이 내리는 때를 당해서야 그들이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아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경우를 간구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다음과 같은 대단히 엄숙한 선언이 발하여 질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 22:1)

나는 만일 그들이 모든 저지르기 쉬운 죄와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함 그리고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새롭게 함" 을 누릴 수 없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전쟁에 설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열심히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도록 하라(초기문집, 71)

우리는 오늘날 말이나 행동에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만족하지 않을 결심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이 마치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 다음 우리의 생애는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 얼마나 그리스도를 밀접하게 따라야 하겠는가?(교회증언 5권, 200)

2월 3일(일)

달아보시는 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삼상 2:3 (하단)

나는 한 천사가 손에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 특히 청년들의 생각과 관심을 달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쪽 저울판에는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있었고, 다른 쪽 저울판에는 세상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이 저울에는 이야기책을 읽은 일, 의복과 쇼, 허영, 자랑 등등에 관한 생각들이 얹혀 있었다. 참으로 엄숙한 순간이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울들을 들고 서서 세상에는 죽고 하나님께는 살았다고 주장하는 자칭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을 달아보고 있었다. 세상의 허영과 자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저울은 저울 눈금을 잇달아 올리는데도 속히 내려갔다. 그러나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으로 가득한 저울은 다른 저울이 내려갈 때 속히 올라갔으며 그것은 참으로 가벼웠다. 내가 그 광경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과 관심을 달아보는 천사를 보았을 때 나의 마음에 새겨진 엄숙하고도 분명한 인상을 나는 결코 표현할 수 없다. 그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런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소망은 헛된 것이며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않는 한 그들은 분명히 멸망 한다고 그들에게 말하여 주라.".…

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사이에서 자신을 달아보고 저들의 생애를 다른 사람들의 생애와 비교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모본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모본이시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그분을 닮는 일에 있어서 남보다 낫도록 힘써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나 희생이 무엇인지 또는 진리를 위해 고통당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과 희생의 정신을 품어야 한다. 어떤 희생이라도 치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고통을 당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을 만한 가치가 있고, 또한 모든 우상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훨씬 더 많이 능가하는 영원한 영광의 무게는 모든 것을 삼키며 세상적인 모든 쾌락을 무색케 한다. (교회증언 1권, 124~126)

2월 4일(월)

그대는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 8: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실 것이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추측했던 것처럼.… 만일 그 기별(1844년의 선포)이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됐더라면 그대들에게는 성품을 계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칙과 믿음으로가 아니라 느낌으로 감동을 받았으며 이 엄숙하고 두려운 기별은 그들을 동요시켰다. 그것은 그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그들의 두려움을 일으켰으나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 하셨던 일은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한 걸음씩 계속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나타나도록 계획된 각기 다른 경우로 인도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한 경우에서는 견디어 내나 다음 경우에서는 떨어져 버리고 만다. 앞으로 나가는 모든 경우에서 마음은 더욱 철저하게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한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이 곧은 일을 반대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극복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기꺼이 받아들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시련의 경우로 인도하실 때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품고 있는 어떤 우상과 정면충돌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여 물러선다. 그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들어 오시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볼 기회를 갖는다. 그들은 어떤 것을 진리보다 더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 들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 각 개인들은 그들이 자신의 우상들을 희생할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 한동안 시험과 시련을 당한다.… 모든 경우를 경험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승리한 사람들은 그 댓가가 어떻든지 간에 참된 증인이신 분의 권면을 마음에 두었으므로 늦은 비를 받게 되고 승천하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 사람들은 저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저들의 행동을 조종하는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만일 그것이 거룩한 진리의 능력이라면, 그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것은 받는 자들을 고상하게 하고, 거룩한 주님과 같이 고상한 마음을 갖게 하며 온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대들이 청년이거나 노인이거나 간에 그대들을 시험하고 계시다. 그대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교회증언 1권, 186~189)

2월 5일(화)

절대로 확실한 안내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약 1:2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신다. 약점과 냉담함과 우유부단함은 사단의 공격을 불러 일으키며 이들 특성들이 자라나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은 밀려오는 유혹의 물결로 말미암아 떠내려 가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살아계신 대장이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랄 필요가 있다. 선원들이 모래나 암초가 있는 강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수로 안내인(키잡이)이 필요하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생애의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하기 위한 안내자가 필요한데 이 안내자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우리는 그대에게 성경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은 노인과 청년 모두의 의무를 아주 뚜렷하고 정확하게 지적한다. 그것은 생각을 고상하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영혼에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을 준다. 성경은 성품에 완전한 표준을 나타내며 생애의 여행이 끝날 때까지 어떤 환경하에서도 절대로 확실한 안내자가 된다. 성경을 그대의 권고자요 매일의 생애에 교훈으로 삼으라.…

겉으로만 탐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진리의 보석이 숨겨져 있다. 진리의 보고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그대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대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고 바울처럼 다음과 같이 외치고 싶어질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그대는 매일 성경 말씀 가운데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그 가운데는 영생의 말씀이 담겨 있으므로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것들을 찾아야 한다. 그대가 이렇게 행하면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진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새롭고도 귀중한 빛을 받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며, 성경 말씀은 그대의 평가에 새로운 가치를 계속 더할 것이다.…

그대의 성품이 변화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남녀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하여 모든 은혜의 자원을 부지런히 이용하라 (교회증언 5권, 263~267)

2월 6일(수)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함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벧전 3:15.

나는 현대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아 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증거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현대의 사업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환란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차지했던 자리를 살펴보고는 자신들이 충분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발견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시험을 받기 전에는 자신들의 큰 무지를 알지 못한다. 또한 교회 가운데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은 물론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나 논쟁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믿음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떠나 홀로 서서 자신의 신조를 설명하도록 강요 받을 때 그들은 그들이 진리로 받아 들였던 것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얼마나 혼란했던가를 깨닫고 놀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깨우치실 것이다. 만일 어떤 수단으로 깨우치지 못하면, 이단이 그들 사이에 들어와서 체질을 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잠에서 깰 것을 요구하신다. 이 시대에 적절한 귀중한 빛이 이르렀다.… 신자들은 진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추측과 그릇 정의된 생각을 품어서는 안된다. 그들의 믿음은 시험의 때가 이르러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답하기 위해 회의에 불려나갈 때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을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서야 한다. (교회증언 5권, 707, 708)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앙을 인하여 시련을 받게 될 때 판에 박은듯한 말을 제시하려고 준비하여서는 안된다. 그들의 준비는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고귀한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먹고 살며 신앙을 증진시키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얻어진 지식을 그것이 필요하게 될 바로 그 때에 그들의 기억에서 번쩍 떠오르게 해 주실 것이다. (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40, 41)

2월 7일(목)

만족시키는 잔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마 5:6.

거룩한 사물에 있어서 난쟁이가 되고 절름발이가 된 상태에 만족하는 남녀들을 갑자기 하늘로 옮겨, 거기서 항상 있는 고상하고 거룩한 완전함의 상태를 보게 하라 내가 묻노니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거민들과 섞여 그들의 노래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어린양에게서 나오는 순결하고 고상하고 황홀하게 하는 영광을 견딜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마음이 영적인 것을 즐기도록 습관화된 사람들은 하늘로 옮기워져도 하늘의 순결과 뛰어난 영광에 압도되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대는 미술에 관한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과학을 알고 있고 음악과 글씨에 탁월하며 그대의 태도는 친구들의 마음에 들른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은 하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들은 그대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속임을 당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을 당하시지 않으신다. 거룩함만이 그대를 하늘을 위해 준비시킬 것이다. 그대에게 순결하고 고상한 성품을 주며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실하고 경험적인 신앙심 뿐이다. 하늘의 품성은 지상에서 얻지 못하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교회증언 2권, 266, 267)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 훌륭한 목적은 옳은 것이나 그것은 단호히 행해지지 않는 한 무익함이 입증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기는 하나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므로 저울에 달아 보아 부족함이 나타나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의지는 옳은 방향으로 행해져야 한다. 나는 전심 전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나는 또한 완전한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할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려보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킬 풍성한 양식을 그리스도께서는 만들어 놓으셨다. (교회증언 2권, 265, 266)

2월 8일(금)

도덕적 자립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후 6:17, 18.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있다. 이 수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어 버리는 세상의 풍습과 관례에 동정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물들을 잊어버리도록 하시고자 우리의 시선을 당신께 고정시키기를 원하신다.

진리가 실제 생활에 들어오면 생활의 표준은 성경의 요구를 따라서 더욱 더 높이 향상 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상의 유행, 풍습, 관례, 처세술 등과 불가불 반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속적인 감화는 바다의 파도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은총의 참된 원칙에서 떠나도록 후려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위처럼 원칙에 확고히 서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할 것이나 영혼이 영원한 반석되시는 분께 고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경향에 휩쓸려 버릴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을 때에만 확고히 설 수 있다. 세상을 대항할 때 도덕적으로 완전히 자립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응함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세상의 풍습과 관례에서 결정적으로 분리될 필요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표준을 세상의 표준보다 그저 약간만 더 높게 향상시키지 말고 결정적으로 분명한 구별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생의 보화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보화를 간직하고나서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 가버릴 사람은 없다. 그는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서는 아무도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끈기있게 노력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향상할 수 없을 것이다.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면서 계속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 개인적인 경계를 더하면 안전이라는 보상이 따른다.…

가까운 장래에 모든 것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자 무장하고 장비를 갖춘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 (교회증언 6권 146~148)

2월 9일(안)

여기에 우상이 있는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일 5:21.

하나님의 모든 참된 자녀는 곡식처럼 체질을 당할 것인데 체질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쾌락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단념해야 한다. 많은 가정에서는 벽난로 장식, 선반, 탁자, 식탁등 장식품과 그림이 가득 차 있다.… 이리하여 하나님과 하늘에 대한 관심으로 향해야 할 생각들이 하찮은 일로 향하게 된다. 이것은 일종의 우상숭배가 아닌가? 그렇게 낭비한 돈을 인류를 축복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굶주리는 자들을 먹이기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세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님의 보고에 드려져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그대를 우상 숭배의 죄에서 구하기 위해 그대에게 강권되고 있다. 만일 그대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어다"라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대의 영혼에는 축복이 이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을 채운 불필요한 장식들에 시간과 마음을 둠으로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다. 그들을 이것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사랑함은 어느 면에서 보아도 우상 숭배이다.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모든 우상 숭배에서 구해 내기를 원하신다. 지금 쓸데없는 장식들로 가득한 책상위에 축복받은 생명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도록 하라. 현대 진리에 관해 마음을 계발하는 수단이 될 책들을 사는 일에 그대의 돈을 사용하라.… 주님의 말씀을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보고(寶庫)로 붙잡으라. 이것이 하늘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안내서가 된다.…

그대가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굴복하는 심령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대가 촛불을 켜고 살피는 것처럼 그대의 마음을 살펴서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세속적인 습관들이 그대를 묶어버리는 가장 가느다란 실조차 찾아내어 끊어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대의 생각과 애정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모든 습관을 보여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라.

하나님께서는 품성을 저울질하는 척도로써 인간에게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에 의해서 그대들은 자신의 품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결점들을 발견하고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모든 우상에게 매인 자신의 관계를 끊고 은혜와 진리의 금사슬로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잡아 맬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2권, 317, 318)

2월 10일(일)

마음을 살핌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를 시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고후 13:5(새번역-RSV)

죄의 기만성보다 더 사람을 해치는 것은 없다. 속이고 눈가림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다. 사단은 그의 모든 유혹을 일시에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는 모든 유혹을 선한 모양으로 가장한다.… 유혹을 당한 영혼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는 벌써 그는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것이니.… 오! 사단은 그의 미끼에 그토록 쉽게 잡히는 것과 또한 사람들이 그가 준비해 놓은 바로 그 길로 행하는 것을 보려고 얼마나 주의깊이 살피고 있는가!…

우리는 면밀히 자기를 반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 과연 나는 마음이 건전한가, 그렇지 않으면 외양으로는 새 옷을 입었으나 아직도 마음은 육에 붙어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이다. 자신을 통솔하여 하나님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하라. 그리하여 어떤 숨은 죄악이나 어떤 부정이나 어떤 희생하지 않은 우상이 남아 있는가를 마치 하나님의 빛으로 보는 것과 같이 찾아 보라. 기도하라.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죄들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욱 사랑하는 일이다. 자신의 영혼과 속임없는 관계에 서라. 주의하여 조사해 보라. 정확하게 조사한다면 하늘을 우러러보며 "저는 위에 기록한 자들 중에 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참으로 적을 것이다. "저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고… 저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나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참으로 적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 귀중한 은혜! 훌륭한 황금보다 귀중한 은혜! 이는 다른 어떠한 법칙보다도 탁월하여 심령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한다. 그것은 마음과 애정을 하늘에 고정시킨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속적 허영과 쾌락과 어리석은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기대하는 바 구주께서 오시는 하늘에 관하여 말한다. 영혼은 사죄와 평화 그리고 의와 참된 성결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위엣 것을 명상하는 일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83, 84)

2월 11일(월)

철저한 질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시 24:3, 4.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혼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죄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싸울 것이다. 그는 매일 매일 더욱 더 맑고 빛나는 빛처럼 되며 더욱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는 점점 더 약해지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아무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속이지 않도록 하라. 만일 그대가 자만심, 자존심, 최상권을 탐하는 마음, 허영심, 부정한 야심, 불평, 불만, 빈정거림, 악한 말, 거짓말, 속임수, 중상 등을 품고 있다면 그대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대는 오래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품성을 가져야 한다.…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시련의 날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높은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그들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가 세상 사람들의 정욕과 취미와 습관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영광의 문턱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세속적인 사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인가? 라고 자문해 보라. 그대의 생각은 순결한가? 그대는 하늘의 분위기로 호흡하고 있는가? 그대는 불결한 독기를 지니고 있지는 않는가? 그대는 순결과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지하고 헌신적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혹은 자녀가 아닌가 진지하게 자문해보라.

우리의 모든 교회에는 철저한 개혁이 요망된다. 하나님의 회개시키는 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한다.… 준비할 시기를 늦추지 말라. 등잔에 기름이 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지 말라. 구원을 확증하지 못하는 위험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 스스로 자문해보라. 나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속하는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속하는가? 나는 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설 수 없을 것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날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41~443)

매순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다. 그리하면 그는 온 하늘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40, 441)

2월 12일(화)

그대는 변화될 수 있는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 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인자께서 머지않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경고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에 익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그들은 깨어 기다리는 위치를 떠났다. 생애 가운데 나타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정신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

노아 당시와 같은 이기주의의 정신, 세상과 짝하는 정신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공언이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받으리만큼 열성을 다하여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시련의 날이 이를 때까지 농사하고, 집을 짓고, 장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것이다. 이것이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이다.…

우리에게 열성이 너무나 부족함을 볼 때 나의 마음은 괴롭다. 세상의 유행과 풍습, 자랑, 쾌락을 사랑함, 과시하기를 좋아함, 사치한 의복과 주택, 이런 일들은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 사용해야 할 재물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물을 훔치고 있는 것이다.…

빛과 낮의 자녀들은 불법의 일꾼들을 에워 싸고 있는 밤과 암흑의 그늘이 엄습해 오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들은 빛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모아 암흑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비추어 주기 위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불경건한 자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그 행위를 모방하지 말고 고결함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 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빛은 차츰 희미해지는 대신에 대낮이 될 때까지 더욱 더 밝게 빛나야 한다.… 우리의 귀에 오랫 동안 울려 오고 있는 "주께서 가까이 이르셨으니 준비하라"는 감동적인 진리는 우리가 처음 그 기별을 들었을 때처럼 오늘날에도 진리이다. (교회증언 5권, 9~14)

2월 13일(수)

의심의 씨를 뽑아버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 10:35~39.

나는 우리가 흔들리는 시기에 살고 있음을 보았다. 사단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게 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성품이 계발되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도덕적인 가치를 달아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고 계신다. 천사는 내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퍅케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한 당신의 백성 중 누구라도 의심을 말함으로써 사단의 암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는 통로가 되는 것을 불쾌히 여기신다. 일단 불신과 악의 씨앗이 뿌려지면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다. 사단이 매 시간 그것을 키워줌으로 그것은 무성하고 강해진다. 좋은 씨를 뿌린 후에는 거름을 주고 주의 깊이 돌봐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라지 못하게 한 채로 죽여 버리고자 해독을 끼치는 영향력이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자기가 속일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므로 과거 어느 때 보다 강력히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곡식이 체질을 당하는 것처럼 쭉정이가 알곡에서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 체질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바라보고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

나는 성도의 상급 곧 영원한 유업을 보았다. 그 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위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견디었으나 그것들을 하늘과 비교하면 참으로 값싼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현재의 고통은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1권, 429~432)

2월 14일(목)

영적 장부가 아니면 난쟁이가 됨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후 7:1.

주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모든 죄와 불의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죄를 지적하시고 불의를 공개해 주신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중에 완전한 성결을 이루어 주님 안에서 죽든지, 혹은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순결과 성결만을 용납하실 것이다. 성품 가운데 있는 한 가지 티나 주름이나 결점도 영광과 보화가 충만한 하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게 할 것이다. (교회증언 2권, 453)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난쟁이가 되는 데 만족해 왔다. 그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의향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경건이란 하나의 숨겨진 신비이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경험적인 지식에 의해 알지 못한다. (교회증언 2권, 266)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사업을 성실하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착수하는 각 사람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준비하셔서, 섬기는 천사들을 통하여 구원의 후사들에게 공급되도록 하신다. 만일 자신의 죄를 버리고 불법한 행실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지한다면 자신을 위해 돌아 가신 예수님 안에서 능력과 순결과 의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하는 악한 사람들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그들의 옷을 벗기시고 희고 빛나는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지 말고 살라고 분부하신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번영할 것이다. 그들의 가지들은 시들지 않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분께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서 그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고, 그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그들을 오른손으로 높이실 것이다. (교회증언 2권, 453, 454)

2월 15일(금)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마 25:1, 2.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고, 또한 세상적인 생각과 관습들의 실로 우리들의 옷을 짜고, 우리의 오래된 습관들에 집착하고 있으면서도, 다만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열 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다. 모두가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졌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칭한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듯이 보이나 그 중 다섯은 준비가 되지 못하였다. 그 다섯은 놀라고 당황하여 피로연장 밖에 서 있게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랄드, 1899. 10. 31)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로 표상되든지 미련한 처녀로 표상된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체하였다.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주의한 생애를 살아왔다. 그들은 진리를 듣고 찬성하였으나 그것을 실생애에 실천하지 않았다. 은혜의 기름이 등에 공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리뷰 앤드 헤랄드, 1899. 10. 31)

그리스도의 명령은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공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우리가 연단하고 순결케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시련을 견디고 용광로의 불이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순금같이 깨끗한 성품이 나타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여전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요 또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 오직 한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 가는 것 뿐입니다"(빌 3:12~14)(리뷰 앤드 헤랄드, 1899. 10. 31)

2월 16일(안)

지금 곧 준비하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 25:13.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는 한밤중에 오실 것이다. 해지기 전에 자기의 할 일을 청산해 놓은 사람은 그 때에 모두 무사할 것이다. 자신과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의로와야 하고 모든 교제는 정당해야 한다. 모든 부정직과 죄악적인 일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 은혜의 기름이 우리 등잔에 채워져 있어야 한다.…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그분의 형상과 흔적을 갖추지 못한 영혼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시험과 연단 받을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신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초청을 하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 55:6)

오늘날 자비의 음성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줄로 사람들을 이끌고 계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수의 옷을 입으실 날이 올 것이다.… 세상의 악은 매일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정한 한계에 이르면 하늘의 기록은 끝나고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그 때에는 죄를 속할 수 있는 희생제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주께서는 오신다. 하나님의 자비는 사랑과 인내와 용서의 손을 죄악 세상을 향하여 길게 뻗쳤다. "나의 힘을 의지하라"는 초청이 발하여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고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였다.

어째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오심을 그토록 지체해 오시는가? 온 하늘의 거민들이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마지막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나 그 사업은 지체되고 있다. 그 이유는 등에 은혜의 기름을 갖고 있다고 공언하는 적은 무리가 세상을 밝혀 주는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선교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 주일 한 주일이 지나가고, 하루 하루가 지나감에 따라서 심판의 때가 가까와 오고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인 신앙, 곧 기분을 따라서 감정에 지배되는 신앙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라.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심판 때에 그대의 위치는 달라질 것이다. (리뷰 앤 헤랄드, 1894. 3. 27)

2월 17일(일)

최후까지 깨어있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이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막 13:35, 36.

한 무리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구주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에 있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막 13:37) .… 주님께서는 마침내 아침 동이 트기까지 지체하실 것을 알리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빨리 아침이 오지 않음을 인해 싫증을 내거나 방심 상태에 빠지도록 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나는 애정과 관심을 세속적인 염려에 쏟아 세속적인 소유물을 얻기에 급급하면서 우리 구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깨어 기다리는 위치를 유지하지 못할 것을 보았다.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한 가지 세상만 얻을 수 있다. 하늘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희생해야 한다. 그들은 두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나는 지난 날에는 철저히 경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경계를 덜 해도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경계할 때보다 시간이 적게 남았으므로 더욱 더 쉬지 않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당시에도 철저히 경계하고 기다렸거든, 하물며 두번째로 경계할 때는 갑절이나 더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두번째 경계가 지나고 세번째 경계를 맞이했으므로 지금은 경계를 적게 하겠다는 핑계를 할 수가 없다. 세번째의 경계는 세배의 열심을 요구한다. 지금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과 인내로써 경계해 온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어둠침침하고 긴 밤은 괴롭지마는 만일 구주께서 오신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 아침이 지체되고 있다. 그토록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너무도 분명하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하여 열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므로 더욱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교회증언 2권, 192~194)

2월 18일(월)

유일의 안전책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 26:41 (상단)

내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경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심판대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록하는 천사가 그들의 이름 맞은편에 "용서"라고 기록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면밀히 살펴서 모든 잘못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경고한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 귀중한 자비의 순간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대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각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지 않으면 황금같은 시간들이 머지 않아 지나고 그대는 달아 보아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교회증언 1권, 263)

예수께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경고하심으로 유일의 안전책을 보여 주셨다. 철저한 경계가 요망된다. 우리는 인간성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고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우리는 방심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원수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사단의 끊임 없는 활동을 깨달은 이상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기다리"도록 하자. 세상의 정신과 감화에 대처해야 하지마는 그것들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교회증언 5권, 409)

영원한 빛에 비추어 그대 자신의 마음을 엄밀히 살펴보라. 하나도 숨김 없이 살펴보라. 자신을 살펴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대의 그리스도인 성품에서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요구하라. 스스로 자부심을 갖거나 자아를 변명하지 않도록 하라. 그대 자신의 영혼을 진지하게 취급하라. 그리하여 그대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거든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밑에 엎드려라. 예수님께서는 그대를 더러워진 그대로 받아 주실 것이며, 당신의 보혈로 씻어서 온갖 더러움에서 정결케 해 주고, 순결하고 조화된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교제하기에 적합하게 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는 불화나 다툼이 없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만 있다. (교회증언 2권, 81)

이 세상은 한층 더 높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학교이며, 이생은 다가올 생애를 위한 준비의 생애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 궁정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살 집을 위해 준비될 때까지 여기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해야 한다. (교회증언 8권, 200)

2월 19일(화)

역사하는 믿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벧전 4:7.

그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며 이 세상 역사의 장면들이 빨리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가? .…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므로 죽은 믿음이다. "이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7)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영생은 얻을 가치가 있는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위한 도덕적인 적합성을 얻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케 하느니라"(요일 3:1~3) 이것이 그대가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그대는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경험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신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자랑, 이기심, 탐욕, 탐심, 세상을 사랑함, 미움, 의심, 질투, 악한 추측들은 영원히 정복되고, 버려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와 같은 죄악들을 고쳐주시고 그분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한 도덕적인 적합성을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와 같은 준비는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모두 마쳐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연구와 열렬한 질문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불평하고 비난하며 화를 잘 내므로 주위의 사람들을 해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영혼도 해할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신중하고, 열렬하고 간절하게 자문해 보라. 흠이 없는 사람들 만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세상의 쓰레기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 갈 수 없다. 모든 도덕적인 특성의 결점들은 먼저 치료함을 받아야 하며 모든 결점들은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보혈로 제거되어야 하며, 또한 품성의 모든 불쾌하고 사랑스럽지 못한 특성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1권, 705)

2월 20일(수)

사단의 대리자들을 경계함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딤전 4:1.

1844년의 때가 지난 후에 우리에게는 갖가지 광신이 닥쳤다. 과거의 경험이 되풀이 될 것이다. 장래에는 사단의 미신적 행위가 새로운 형태를 취할 것이다. 즐겁게 하고 비위를 맞추는 태도 가운데서 오류가 나타날 것이다. 빛의 옷을 입은 거짓 교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될 것이다. 이리하여 사단은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고자 할 것이다. 가장 매혹적인 감화를 받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온갖 부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일,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의지의 방종, 불경건한 자들의 권면, 사단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 끝이 오게 한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생각은 사람들이 그의 기만적인 감화 아래서 하나님과는 진정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만적인 오류의 음식을 먹고 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 말함으로써 자신의 첫 조상들에게 숨겼던 것처럼 사단의 대리자들은 거짓 이론들을 매력적인 옷으로 가리우고 있다. 실상 이들 대리자들은 치명적인 오류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서서히 주입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싫어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치명적인 감화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이 함정에 빠뜨리고자 애쓰고 있는 대상자들은 큰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만일 그가 그들을 기만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의 지배 하에서 죄 위에 의의 옷을 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킬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경계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사단이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교회에서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갈 6:7)는 경고를 전하라는 명을 받았다. (교회증언 8권, 292~294)

2월 21일(목)

위장된 유혹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행 20:29, 30.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맡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람들을 택하실 때 당신의 백성을 지나쳐 버리시고 여기 저기서 한 사람씩 택하시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 단체의 확립된 믿음과 반대되는 새로운 빛을 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신다. 개혁 사업이 있을 때마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일어났다.…

사람은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새롭고도 괴이한 사상을 받아들인다. 그는 아름답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사단이 거짓 것을 매력있게 보이게 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것은 모든 것을 흡수하는 주제, 즉 그 주위에 모든 것이 집중하는 하나의 큰 원칙이 되어 진리를 마음에서 몰아내 버린다.…

나는 마음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지엽적인 문제들에 유의할 것을 그대에게 경고한다. 오류는 결코 해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항상 혼란과 충돌을 일으킨다.…

가면을 쓴 유혹들이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수없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 중의 어느 누구에게나 유일한 안전책은 먼저 경험있는 형제들에게 제시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새 교리나 새로운 성경 해석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그들 앞에 제시해 주라. 만일 그들이 그 가운데서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면 그들의 판단에 순종하라.

사단은 끊임 없이 일하고 있으나 그의 활동과 교활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활한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그는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와 만일 우리가 그를 저항하면 쉽사리 패배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보다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성도라도 사단과 그의 천사들에게는 힘에 겨운 적수가 되고, 시험을 받을 때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의 방법은 소리없이 진행되며 그의 활동은 은밀하며 또한 그의 정체는 가면으로 가리웠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잠자는 정력을 깨워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교회증언 5권, 291~294)

2월 22일(금)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고전 7:29 (상단)

하나님의 천사들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기별에서 시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것은 언제나 내게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이 기별이 발표되었던 초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시간은 계속 연장되어 왔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나타나시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과 형벌에 대한 선고는 조건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성취되어야 할 한 가지 사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맡기셨다. 세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되어야 했고 신자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속죄하시기 위해 들어가신 하늘 성소를 주목해야 하였다. 안식일 개혁이 진전되어야 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에 생긴 틈은 메꾸어져야 했다. 그 기별은 지상의 모든 거민들이 경고받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순결케 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흠없이 그분 앞에 서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재림교인들이 1844년의 대실망 후에 세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공개된 하나님의 섭리에 연합하여 순종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과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것이고 그 사업은 마쳐지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접하셔서 상급을 주시고자 벌써 오셨을 것이다.

그러나 대실망 후에 계속된 의심과 불신의 기간 동안에 많은 재림 신자들은 믿음을 포기하였다.… 이리하여 그 사업은 방해를 받았고 세상은 어둠에 처하게 되었다.…

40년 동안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과 불평과 반역을 거듭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것과 동일한 죄악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지체시켜 왔다. 그 두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잘못이 없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세속주의와 불충성과 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과 죄악이 많은 세상에 그토록 오랫 동안 살고 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67~69)

2월 23일(안)

도달해야 할 목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기록하였을 때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표준을 목표로 삼으라고 훈계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뜻하시지 않은 축복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원하지도 않았다. 그는 평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합당한 사람은 모두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인 절제와 성경상 위생, 54)

만일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믿노라고 공언하는 바를 실천하여 신실한 건강 개혁자가 되었다면, 그들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정말로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더욱 더 큰 열성을 나타내었을 것이다.

머지 않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더 큰 개혁이 나타나야 한다. 육식의 위험으로부터 깨어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금 음식 문제에 관해 겨우 반쯤 개심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기 위하여 떠나갈 것이다. (건강에 관한 권면, 575)

억제되지 않은 식욕의 세력이 수 많은 사람들을 파괴시켰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동시에 만일 그들이 이점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면 사단의 다른 유혹들을 극복할 도덕적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육천년 동안의 계속적인 범죄는 결과적으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가져왔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까이 이를수록 식욕에 방종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그 유혹을 극복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건강에 관한 권면, 574)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의 산물을 먹고 살도록 하신 당신의 원래의 계획으로 되돌아 가게 하시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거듭 거듭 보았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육식을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떠나갈 것이다.

육식이 저들의 식단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을 그칠 것이다. 우리는 이점에 있어 끝까지 고수하고, 또한 확고하게 일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에 관한 권면, 450)

2월 24일(일)

마귀의 일을 할 때가 아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벧후 3:11, 12 (상단)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에 싸여 있는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와는 원수가 되는 일을 하면서 그와 협력하고 있는지 혹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면서 그분과 협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요긴한 일이다.…

사단은 어떤 사람들이 형제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일에 가담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대열에서 일하지 않는 자칭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통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지금은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때이다. 우리에게는 불신을 말하거나.… 마귀의 일을 행할 시간이 없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와 분열의 씨를 뿌림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동요시키지 않도록 경성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시고 찬성과 반대의 대답에 따라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행동의 열매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질 때까지는 사방이 붙잡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기간을 참으로 신중히 이용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로 자신을 열렬히 살펴야 한다.…

요망되는 것은 영혼의 세련과 마음과 생각의 청결이다. 이것은 뛰어난 재능이나 재주나 지식보다 가치가 있다.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평범한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세상 사물에 관한 그들의 지식을 자랑할는지 모르나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비참하게도 무지한 것이며 그들의 지식은 그들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세속적인 지식은 힘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 말씀의 지식은 불멸의 것이다. (리뷰 앤드 헤랄드, 1900. 11. 27)

2월 25일(월)

사단의 마지막 싸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줄 아노라" 요일 2:18.

원수는 교회에 대한 자기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 그는 자신을 너무도 잘 감추어 왔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존재하는지 조차 거의 믿지 못하며 그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는 더구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므로 그의 제안과 명령을 자연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에게는 악을 효과적으로 저항할 능력이 없다.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 속에 거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 밖의 방어수단은 완전히 무익하다. 사단의 능력에 제한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할 중대한 진리이다. 사단은 항상 분주히 세상을 이리 저리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나 열렬한 믿음의 기도는 그의 강한 노력도 좌절시킬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세상에 닥치고 있는 전체적인 멸망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더욱 단단한 결심을 하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옛 지계표에 속한 믿음을 불안하게 할 어떤 새로운 빛이나 계시를 가졌다고 공언하는 남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지만 사람들은 기만을 당할 것이다.… 거짓 소문이 떠돌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함정에 빠질 것이다.… 사단이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이탈시키고자 계속 애쓰고 있으므로 우리가 모든 형태의 죄에 대해 아무리 경계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확고한 성품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퍼티(유리창 등에 접착제로 쓰는 일종의 풀임:역자주)덩어리와 같아서, 마음대로 주물러서 형태를 바꿀 수 있다. 이와 같은 약점과 우유부단과 무능력은 극복되어야 한다. 참된 그리스도인 품성은 역경으로 변형되거나 굴복되지 않는 확고함이 있다. 사람들은 도덕적 주체의식, 곧 칭찬에 우쭐대거나, 매수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고결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지날 수 없는 경계를 세우셨다. 우리의 가장 거룩한 믿음이 이 울타리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확립한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294~297)

2월 26일(화)

하늘의 문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 11:5.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에녹은 3백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시간이 짧은 것은 우리로 의를 구하게 하는 동기로서 우리를 재촉하고 있는 것같다. 우리에게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하나님의 두려운 날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하는가? 에녹의 경우가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그는 수 백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도덕적인 타락이 주변에 가득했던 시대에 살고 있었으나 자신의 마음을 헌신하고 순결을 사랑하도록 단련시켰다. 그의 대화는 하늘의 사물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이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마음을 단련하였고 거룩하신 자의 인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

에녹에게도 우리와 같은 시험들이 있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회처럼 의에 대해 호의적이 아닌 사회에 에워 싸여 있었다. 그가 호흡하는 분위기는 오늘날처럼 죄와 타락으로 더럽혀져 있었으나 그는 거룩한 생애를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결하고 타락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는 마지막 시대의 위험과 타락 가운데서 사는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성실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승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살아 남아 있는 충성된 자들도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2권, 121, 122)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 3백년 동안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에녹은 영혼의 순결을 구하고 있었다. 날마다 그는 더 긴밀한 연합을 사모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곁으로 데리고 가실 때까지 그 교통은 점점 가까와졌었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 어귀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 사이는 한 발자국의 간격 밖에 없었다. 그 때에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어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기 들어간 최초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와 같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의 성품은 에녹의 성품만큼 거룩해야 한다. (교회증언 8권, 331)

2월 27일(수)

확실한 묵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합 2:3.

그 깊은 시련의 시대에 하박국과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동일한 믿음이었다.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하에서도 그리스도인 신자는 자신의 영혼을 모든 빛과 능력의 근원에 머물게 할 수 있다.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를 통하여 그의 소망과 용기는 새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봉사함에 있어서는 낙담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기대 그 이상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그는 그들의 여러가지 필요에 요구되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시험받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이룩한 풍부한 준비에 대하여 감동을 주는 증언을 한다. 그에게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이 주어졌다. 시련을 당하던 하나님의 종은 감사와 확신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 10)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배양하여야 한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기다리는 시간이 긴 것처럼 보이고 실망시키는 환경들에 의하여 영혼이 압박을 당하고 확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타락할는지 모르나 전례없는 배도의 시대에 유다를 격려하려고 노력한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굳게 믿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합 2:20)고 선언하도록 하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3, 4)는 즐거운 기별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자(선지자와 왕, 386~388)

2월 28일(목)

안전한 피난처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사 26: 21.

결정적인 악이 한결같이 증가하는 까닭에 도시의 주민들에게는 거의 전반적인 범죄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증가되고 있다. 성행하는 타락은 인간의 필설로는 묘사할 수가 없다. 날마다 투쟁과 뇌물을 주고 받는 일과 새로운 사기가 나타나고 날마다 폭행과 불법,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인간의 생명을 잔인하고 흉악하게 멸하는 마음 아픈 사건이 나타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오래 참으심과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당신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다루신다.… 주께서는 사람들과 도시들을 하나님의 분노에서 구원하시려고 자비스럽게 경고를 발하시면서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나 자비를 위한 탄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사회, 특히 여러 나라들의 대도시에서 성행하는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고 세상의 모든 사물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우레와 같은 소리로 선포하고 있다. 우리는 시대의 위기의 문턱에 서있다. 전쟁과 피흘림과 함께 화재, 홍수, 지진 등의 하나님의 형벌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은 모여들고 있으며 자비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만이.… 서게 될 것이고 거룩하신 통치자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들만이 황폐가 지나갈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기움을 받을 것이다.

다음의 시가 영혼의 언어가 되게 하라.

"나에게 다른 피난처가 없으니
내 어쩔 수 없는 영혼은 당신께 매달리나이다.
오! 저를 홀로 있게 맙소서!
여전히 나를 붙드사 위로합소서.
오! 나의 구세주여
생애의 폭풍이 지나기까지
나를 숨기사
안식처의 안내자에게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내 영혼을 받으소서!"
(선지자와 왕, 275~278)

3월 1일(금)

다가오는 위기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욜 1:15 .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까지 사건의 사슬에 거리와 고리를 연결시키시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한다. 현재까지 성취되리라고 예언된 모든 예언은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오늘날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 어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우리들 세계의 모든 일들은 격동하고 있다. 당신의 재림에 앞설 사건들에 관한 구세주의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마 24:6, 7)

현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신뢰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정치가들은 각 계급의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열국 중에 존재하는 관계들을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크고도 열정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세상은 바야흐로 놀라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성경, 성경만이 이 일들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준다. 성경에는 이세상 역사의 마지막 큰 장면이 나타나 있으며 그 사건들이 가까이 이르는 소리가 세상을 진동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공포로 악하여졌다. (선지자와 왕, 536, 537)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릇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추로 시험을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저희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 (선지자와 왕, 536)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곧 일어날 놀라운 일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교훈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이 준비를 해야 한다. (선지자와 왕, 626)

3월 2일(안)

죄로 병든 영혼을 치료함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사 1:5, 6.

죄로 병든 영혼에게는 한가지 구제책이 있다. 그 구제책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귀하신 구세주! 그분의 은혜는 가장 약한 자에게도 족하다. 또한 가장 강한 자도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멸망한다.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보았다. 그대의 밀실에 가서 거기서 홀로 하나님께 탄원하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열심을 내고 성실하라 .… 야곱처럼 정성껏 기도하라. 전심 전력을 다하라 .… 그대는 노력해야 한다.…

그대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라. 열심을 품고 나오라. 하나님께서 그대 안에 철저한 개혁을 일으키셔서 그대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세상의 빛처럼 빛나게 되도록 그분께 간구하라.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에 장애나 저주가 되지 않고 도움과 축복이 될 수 있다. 사단은 그대가 구원을 온전하고도 자유롭게 누릴 수 없다고 말하는가? 그를 믿지 말라.

성령의 깊은 감동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임을 나는 보았다. 즐거운 하늘의 평화가 마음에 충만할 것이며 그대는 하나님과 하늘에 대해 명상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즐기게 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들의 최고의 애정이 집중되어 있는 그들의 가장 훌륭한 친구가 되시는 그분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속절없고 멸망해가는 상태를 느낄 때 그들을 도우시려고 오셨다. 그들은 피곤하고 무거운 죄짐을 진 채로 예수님께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죄책감이라는 짐을 벗겨 주셨고, 그들의 애정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셨다. 그들이 전에 사랑하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고, 그들이 미워했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다.

이처럼 큰 변화가 그대에게도 일어났는가?(교회증언 1권, 158~160)

3월 3일(일)

새 생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요 3:5~7.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들어가고자 힘쓰는 자는 가능하지 못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 단지 법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아주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계시다. 받는 사람은 아마 의식하지 못할는지도 모르나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게 하는 감명을 받는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에게 바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돌연한 회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독촉하신 결과인 것이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로 생기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는 있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로 그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거기에는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거나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유한한 인간의 지력으로 구속 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오묘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러나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간 자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실재임을 깨닫는다.

우리가 이 곳 지상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구속의 시작을 알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영원한 세대에 미친다. (시대의 소망, 172, 173)

3월 4일(월)

생애의 최우선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하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는 가장 큰 목표이다. 다른 목표들은 2차적인 것들이 되어야 한다.

사단은 세속적 쾌락의 길을 꽃들로 덮는 반면에 성결의 길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낼 것이다. 유혹자는 실물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는 색채와 거짓으로 그대 앞에 있는 쾌락적인 세상을 장식할 것이다. 허영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의 가장 강한 특성들 중의 하나이며 그 유혹자는 그것에 가장 성공적으로 호소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는 자기의 사자들을 통하여 그대들을 유혹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허영을 만족시키고 그대 안에 자만심과 자존심을 키워줄 칭찬을 들으므로 그런 유익과 매력 때문에 그대가 세상에서 나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정말로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세상의 쾌락은 끝날 것이고 그대가 심은 것은 또한 그대가 거두어야 할 것임을 생각해 보라. 개인적인 매력과 재능과 능력 등은 그대를 지으시고 매 순간마다 그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바치기에 너무나 귀한 것들인가? 그대의 특성은 너무도 귀중하여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가?

청년들은 그들의 마음을 전환시키고 활기차게 할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근면에는 즐거움이 있고 유용한 생애에는 만족이 있음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과 피곤한 일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이 위안과 원기를 찾기 위해 무엇인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마땅히 필요한 것이다. 신앙은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신 분께로 인도하는 확실한 안내자이신 보혜사를 신자에게 증거할 것이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명상과 기도에 몰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여가를 가장 잘 선용하는 길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젊은 친구들이여, 그대는 그대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 그대 자신을 확증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대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부지런히 확인하라(교회증언 1권, 502, 503)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삼으라. 올바르게 알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분을 알기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하라(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484)

3월 5일(화)

흠 없는 하늘의 진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 13: 45, 46.

그리스도 자신은 값진 진주이시다. 그리스도의 의는 순백한 진주처럼 결함이나 흠이 없다. 사람의 솜씨로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그 큰 선물을 개선할 수가 없다. 그것은 추호의 흠집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골 2:3)어 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고전 1:30)다. 금세나 내세에 있어서 사람의 심령이 요구하는 것과 사모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 우리 구주께서는 너무나 값진 진주가 되시므로 다른 모든 것은 그것과 비하면 해로 여길 것이다.…

비유 가운데 진주는 값없는 선물로 나타나지 않았다. 장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하였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고 질문하는 자들이 많다. 물론 그는 값없는 선물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에게 그들 자신 곧 혼과 몸과 영을 아낌없이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재능이 모두 주님의 것이므로 그분의 봉사 사업에 바쳐야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그에게 바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된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장(市場)에서는 고귀한 진주가 돈이나 값없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의 모든 보물을 얻을 수 있다. 진리의 보배의 창고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다.… 구주의 간곡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가장 부요한 사람처럼 구원을 살 수는 있으니 대개 세상의 재물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라도 이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즐거움으로 하는 순종과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바 된 자로서 그에게 바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한 흥미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실물교훈, 115~117)

3월 6일(수)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 1:13, 14.

그대가 어떤 사람이건 혹은 그대의 생애가 어떠했거나에 상관없이 그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대는 회개해야 하며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속절없이 떨어져야 한다. 그대는 한분이신 의원과 죄의 유일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이 치료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정결케하는 그 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만 유익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요구할 자격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진하여 우리의 구속을 담당하신 것은 얼마나 훌륭한 사랑이며 겸손이신가? 그러나 우리의 위대하신 의원께서는 모든 영혼에게 주저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경우를 위해 스스로의 처방을 써서는 안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의지와 행동을 온전히 지배하셔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품성이 바르므로 공인된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다고 자부심을 가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들 중의 괴수처럼 생애하는 것을 만족히 여겨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리스도의 의를 탄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위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자아는 죽어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놀랍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시 115:1)

진정한 믿음에는 사랑이 따르고 사랑에는 순종이 따른다. 개심한 사람의 모든 능력과 정열은 그리스도의 지배 하에 있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며, 그 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요일 3:9) 죄를 사랑함과 자기를 사랑함이 그 안에서 억제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시 116:12)(교회증언 5권, 218~220)

3월 7일(목)

스스로 맛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4 :8.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인가? 시편기자는 우리에게 듣고서 알거나 읽고서 알거나 혹은 믿어서 알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 맛을 보라.

경험은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지식이다. 체험적인 신앙이 지금 필요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인 진리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갖고 있으나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작용하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결코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믿으나 그것을 면하기 위해 아무런 열렬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믿으나 그것을 얻기 위해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대한 치료제를 알고 있으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옳은 것을 알고 있으나 그것에 대해 흥미를 못 느낀다. 그들이 가진 모든 지식은 그들의 형벌을 더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선하신 분임을 경험을 통하여 맛보아 알지 못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평판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애를 방해하는 각종 달콤한 방종은 중단해야 한다.… 우리가 마침내 얻을 목표의 가치에 비례할 만한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는 교제는 제한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감화를 끼친다. 우리가 그 감화를 받는 정도는 친밀한 정도, 교제의 지속성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말미암아 흠없는 모본이신 그분처럼 될 수 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참으로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이든지 치룬다면 그와 같은 교제를 즐기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교회증언 5권, 221~223)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요 3: 33)침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필요한 도움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였다.… 모든 부족은 충족되었으며 나의 영혼의 배고픔에 만족을 얻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는 그가 나에게 거룩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나는 성경이 나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므로 성경을 믿는다"(교회증언 8권, 321)

3월 8일(금)

하늘나라의 시민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엡 2:19.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임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하며 마치 주님의 강림은 가까왔고 우리는 세상에서 순례자들이며 나그네들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교회증언 5권, 266)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속에서 더욱 더 풍성하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빌 1:10, 11)도록 하기 위해 은혜를 받는 모든 방법이 부지런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대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활기있고 튼튼한 모습을 취해야 한다. 그대는 성경 말씀에서 제시한 높은 표준에 달할 수 있으며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대는 가만히 정지해 있을 수는 없다. 전진하든가 후퇴하든가 해야 한다.

그대는 그리스도인 성장을 느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생애에서 건전한 발전을 할 것인가? 영적 건강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녀로서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난다. 그의 성장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확고하게 되어야 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관한 이해력과 경험적인 지식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신앙을 구성하는 믿음과 교리의 웅장한 체계 가운데서 초보적인 원칙들 만을 이해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들은 "잘 하였다"는 칭찬을 받을 만큼 완전한 품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얻어야 할 큰 승리들이 있으며 우리가 얻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될 하늘나라가 있다. 육욕적인 마음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힘이.… 마비된 영혼에게 전기 충격처럼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리하여 모든 근육이 새 생명을 받고, 무감각하고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라. 그대는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대의 영혼에는 그분의 채찍으로 치료받은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264~267)

3월 9일(안)

하나님께 대한 더욱 완전한 지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에 맞을 준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다만 피상적인 신앙만을 갖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으므로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사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평안을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혹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웅변적으로 이야기해 왔으나 그들 스스로가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이론은 사람들을 그분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지식은 불완전하다. (리뷰 앤드 헤랄드, 1903. 2. 3)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구한다 해도 하나님은 찾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성의 분명한 표현이신 당신의 아들 안에 자신을 나타내셨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관한 지식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생애를 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더욱 분명하고 더욱 고상한 개념을 신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알리라, 9)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8)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앎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분께서 오실 때에 맞을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할 때이다. 그분을 맞을 준비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엄숙한 광경에 앞서 열심으로 일하며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분주한 삶의 무대 한 가운데서도 저들의 목소리가 용기, 소망,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들릴 것이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저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가 오실 때 그들은 기쁨으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왔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랄드, 1903. 2. 3)

3월 10일(일)

가장 고상한 명상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일 3:1.

죄인이요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부터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가족이 된 것은 참으로 비할 데없는 사랑이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그분을 부를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걸쳐 내려온 모든 부모의 사랑과 인간의 영혼에 나타난 모든 자비의 원천을,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는 것은 작은 시냇물을 대양에 비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며 그것을 이해하고자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동정심을 이해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대가 그 사랑을 평생 동안 연구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아들을 그대를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영원 그 자체도 그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의 경륜에 대해 명상할 때 이 위대한 주제들을 더욱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739, 740)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곧 자비와 온유와 동정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셨다. (교회증언 5권, 738, 739)

말구유에서 갈바리에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매일 명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의 매 장면을 명상하되, 특히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생생하게 명상하여 이해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훈과 고난 그리고 인류의 구속을 위한 당신의 무한하신 희생을 이렇게 명상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고 구주를 의지하는 정신을 더욱 깊이 가지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고상하고 관대한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명상과 비례될 것이다. (교회증언 4권, 374)

3월 11일(월)

필요되는 흰옷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마 22:11, 12.

비유 가운데 예복은 참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계 19 :8)는 품성을 얻게 하도록 이것은 준비되었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엡 5:27)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즉 믿음으로 예수를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되자 저희는 하나님과의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고 저들을 둘렀던 빛은 떠나게 되었다.… 사람은 저희가 잃어버린 죄없는 두루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가리우는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가리우는 옷 즉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입혀 주신다.… 하늘 베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시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사 63:6)은 것이다. 우리 자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가 죄로 더럽혀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일 3:5)…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때에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곧 그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는 무화과 잎사귀의 옷이나 죄로 인하여 헐벗고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당신이 친히 주신 의의 두루마기를 보시게 된다. (실물교훈, 310~312)

3월 12일(화)

순종의 기쁨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 하나이다" 시 119:174.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멍에가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에게 즐거움이 된다. 그는 자신의 부족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떨어뜨리고자 애쓰는 대신에 율법의 완전한 표준에까지 도달하려고 계속 노력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려면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지체되고 자비의 음성이 아직도 들리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죄를 버릴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다.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대는 결혼 예복을 입고 있는가? 그 예복은 기만과 불결과 타락과 위선을 결코 덮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대를 향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는 죄를 숨길 수 있을는지 모르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시선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도록 허락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에서 탄원할 수 있다. 우리는 비록 가치가 없지만 그분을 통하여 모든 영적 축복들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로 나가고 있는가?(교회증언 5권, 220, 221)

하나님의 뜻은 그의 거룩한 율법의 교훈에 나타났는데 이 율법의 원칙은 곧 하늘의 원칙이다. 하늘의 천사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이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율법을 준수하는 정신으로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단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하였을 때에 천사들은 비로소 율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사들이 봉사를 하는 것은 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들로서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일은 그들에게 고역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로 봉사가 기쁨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서는 '내가 당신의 뜻 행하기를 즐김이여 당신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도다'라는 말씀이 반영될 것이다. (산상보훈, 109)

3월 13일(수)

하나님의 작업장에서 꼴지어짐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의 집이며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전 6:19, 20 (새번역)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비싼 댓가를 치루고 산 바 되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가장 훌륭한 건강상태로 보존하도록 맡겨진 큰 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오실 것을 의심없이 믿는다.… 우리는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교리가 현대 진리라는 사실과 심판이 가까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며, 수년 간에 걸쳐서 의심해 오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충성된 자들과 의로운 자들에게 불멸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거나 우리의 성품의 결점들을 제거하시거나 우리의 성벽이나 기질의 약점을 치료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이 사업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행해진다면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사업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할 것이다.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보존한 사람들은 그 때에는 그들의 결점을 제거하거나 그들에게 거룩한 성품을 부여할 아무런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은혜의 시기인 지금 행해져야 한다.… 이 사업이 우리를 위해 행해져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작업장에 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채석장에서 나온 거친 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때 그 감화는 우리에게 미친다. 그것은 우리를 고상하게 하며 우리의 성품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서 모든 불완전한 것과 죄를 제거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영광중에 왕을 바라보고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서 순결한 자들과 하늘 천사들과 연합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우리의 몸과 영이 불멸의 몸을 입기에 합당하게 되어야 하는 이 사업을 이루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다. (교회증언 2권, 354~356)

3월 14일(목)

육체적인 건강과 고결한 생각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벧전 2:11.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방탕한 생활에 대한 경고로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더욱 더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식욕이나 정욕의 모든 해로운 만족을 금한다. 모든 그릇된 식욕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욕이 된다. 식욕은 훌륭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식욕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으로 전락시켜 사망의 종이 되지 말아야 했다. 베드로의 훈계는 모든 자극제와 마취제의 사용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고가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인 성품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 절제와 성경상 위생, 54)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육체의 건강을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부절제는 죄악이 아니며 그들의 영성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믿지 않아야 한다. 육체적 본성과 도덕적 본성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육체적인 습관에 의하여 도덕의 표준이 향상되거나 타락하거나 한다. 가장 좋은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먹으면 도덕적인 감각에 있어서 병적인 상태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음식은 더욱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인체의 조직 가운데서 건전한 활동을 촉진시키지 않는 어떠한 습관도 더욱 고결하고 고상한 기능들을 타락시킨다. (건강에 관한 권면, 67)

식욕에 방종하도록 유혹하는 세력은 광야에서 오랫 동안 금식하신 우리 구주의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만 측정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그릇된 식욕의 방종이 인간의 지각을 약화시켜 거룩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알고 계셨다.… 방종한 식욕의 세력이 인류에게 너무나 강하였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그 세력을 깨뜨리시기 위해 거의 6주간의 단식을 견디셔야 했다면, 그리스도인 앞에는 얼마나 어려운 사업이 놓여 있겠는가! 그러나 그 투쟁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있다. 사단이 고안할 수 있었던 가장 극심한 유혹들을 견디신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은 악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성공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167)

3월 15일(금)

생애의 파종과 수확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딤후 2:22.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이여, 젊을 때에 죄악으로 낭비한 시간이 비록 짧을지라도 그대의 전 생애를 쓰라리게 할 수확을 거두게 할 것이다. 단 한 시간의 부주의, 유혹에 단 한번의 굴복이 그대의 생애의 전체적인 경향을 그릇된 방향으로 돌려 놓을 수 있다. 그대는 단 한번의 청년 시대 밖에 갖지 못하므로 그 시대를 유용하게 보내도록 하라. 그대가 일단 그 시기를 지나가 버리면 결코 그대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돌아서지 못한다.… 사단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장하고 그럴듯한 유혹들을 청년들에게 제시하여 그들을 점차적으로 의무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 하는 자, 괴롭히는 자, 살인자로 묘사되어 있다.… 그대를 유혹하는 것은 사단의 행위이지만 그것에 굴복하는 것은 그대 자신의 행위이다. 유혹당한 자들을 범죄하도록 하는 것은 사단의 모든 군대의 세력 때문이 아니다. 죄는 변명할 수 없다. (교회증언 4권, 622, 623)

유혹은 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순결하셨으나 인간이 다시는 결코 당하지 않을 힘과 능력으로 우리처럼 모든 점에서 유혹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공적인 저항을 통하여 당신의 발걸음을 따라야 한다는 빛나는 모본을 우리에게 남기셨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믿거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다면 유혹의 세력에 굴복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는 싸움터에서 원수를 정복하신 한 능력에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예수님은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사단의 유혹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그 유혹들을 대항해야 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사단에 대항하는 깃발을 높이실 것이다. (교회증언 5권, 426)

하나의 그릇된 성품의 특성, 하나의 간직된 죗된 욕망은 복음의 모든 능력을 결국은 무효화 시킬 것이다. 의무를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죄를 즐기는 것은 사단이 사람들을 자기의 올무에 묶어두는 끈이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충성된 자들로 입증될 유일한 자들이다. (교회증언 5권, 53)

사단의 가장 강력한 유혹이라도 확고한 원칙으로 무장한 청년들에게서는 저들의 충성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교회증언 3권, 472)

3월 16일(안)

하늘이 시인하는 성품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딤전 4:12.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께서는 청년들을 위해 모본을 남기셨다. 그분께서는 나사렛에 있는 작업장에서 매일의 양식을 위해 힘써 일하셨다. 그분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셨으며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쓰거나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애쓰지 않으셨다. 청년이 안일한 방종의 생애를 통하여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혹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탁월한 경지에 결코 이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서 우리에게 안락과 명예와 재물을 약속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을 겸하여" 필요한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이며, 내세에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분께서 보증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있어서는 전적인 헌신만을 받아들이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우리는 확고하고 신앙적인 원칙을 지지하는 능력의 실례들을 주목해 왔다.… 무서운 사자굴도 다니엘의 매일의 기도를 그치게 하지 못했으며 맹렬한 풀무불도 사드락과 그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 앞에 엎드리게 하지는 못했다.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하나님께 불충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희생하고 고통을 문제삼지 않고 용감할 것이다. 요셉의 성품을 주목하라. 덕성은 심한 시련을 당하였지만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고상한 청년들은 모든 점에서 시련을 견디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동일하게 고상하고 확고한 원칙이 나타났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은 율법이었다. (교회증언 5권, 42, 43)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언제나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원칙들이 실생활에 나타날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충심으로 받아들여서 성품의 기초로 삼으면, 그것은 쾌락적인 유혹, 습관의 변덕, 세상을 사랑함, 방종을 요구하는 마음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확고한 의지를 가질 것이다. 양심이 먼저 계발되어야 하고 의지가 굴복되어야 한다. 진리와 의에 대한 사랑이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하늘이 인정할 수 있는 성품이 나타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43)

3월 17일(일)

베드로의 사다리를 오름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벧후 1:5~7.

청년들에게 베드로의 여덟 계단의 사다리를 가리켜 주고 그들이 가장 높은 계단이 아닌 가장 낮은 계단에서부터 맨 꼭대기까지 오르도록 열렬한 호소로 강권하라.

그리스도는… 사다리이시다. 그 바닥은 당신의 인성으로 세상에 단단히 박혀 있고 가장 높은 계단은 당신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도달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타락한 인류를 붙들고 있는 한편 당신의 신성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표준만큼 그 사다리의 매 계단을 올라감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심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믿음과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은 이 사다리의 계단들이다. 이 모든 은혜들이 그리스도인 성품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벧후 1:10, 11)(교회증언 6권, 147)

그대는 한 가지 덕성을 완전하게 계발시킨 다음에 다른 은혜를 계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함께 자라나야 한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온전히 나타난 축복받은 속성들을 매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 (성경주석 7권, 943)

그대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사업의 엄청난 양에 압도되지 말 것인데 그것은 그 모두를 단번에 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다. 그대의 온갖 능력으로 그날 그날의 일을 하게 하며 귀한 기회마다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제군에게 주시는 바 도움을 감사히 여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다리를 올라 향상 발전하도록 하라. 그대는 하루씩만 사는 줄을 기억할 것이니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것이며 그대가 그 하루 하루에 당하는 특권과 기회를 얼마나 가치있게 이용했느냐 하는 것은 하늘 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대가 마침내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받은 바 그 하루 하루를 이용하기를 바란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6)

3월 18일(월)

영혼의 호흡

"쉬지말고 기도하라" 살전 5:17.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모든 축복의 통로이다. 회개하는 영혼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맥박에 손을 얹으시고 모든 고동을 기록하신다. 감동을 주는 어떤 감정도, 동요를 일으키는 어떤 정서도, 그늘을 가져오는 어떤 슬픔도, 영혼을 더럽히는 어떤 죄도,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사상이나 목적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 영혼은 무한한 댓가를 치르고 샀으므로 불변의 애정으로 사랑하게 된다.

영혼의 치료를 위하여 위대하신 의원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른다. 기도는 우리 서로를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합시킨다.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편에 모셔오고, 지치고 고달픈 영혼에게 새로운 힘과 신선한 은혜를 준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분께서는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으므로 그분의 필요성은 인간의 필요성과 같은 것들이었다. 그에게는 공급되어야 할 육체적인 필요성이 있었고 경감되어야 할 육체적인 피로가 있었다. 그분께서 의무와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아버지께 드린 기도 때문이었다. 그분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애를 쓰시면서 매일 계속되는 의무에 종사하셨다.… 또한 그분은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온 밤을 기도하시면서 세우셨다.…

구주께서 산이나 광야에서 밤 동안에 드린 기도는 그 다음 여러날 당신께서 당해야 하는 시련들에 대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영혼과 육체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활기있게 무장하여 사단의 유혹을 대항할 필요성을 느끼셨는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9)고 말씀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실 분은 그리스도 밖에 없다. 이것은 매일 자신이 부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전쟁터에서 인내하는 힘으로 견딜 수 있고 또한 싸울 수 있는 고상한 결의를 주실 수 있다. 가장 약한 자라도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조력을 받는 자는 정복자 이상의 힘을 가질 수 있다. (리뷰 앤드 헤랄드, 1900. 10. 30)

3월 19일(화)

향상의 비결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 62:8.

우리가 거룩한 생애에서 향상하고자 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진리의 기별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많은 기도를 드렸다. 침실이나 골방이나 과수원이나 숲속에서 중재의 음성이 들렸었다. 우리는 자주 두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약속을 구하면서 오랫동안 열렬한 기도를 드렸는데, 이따금 우는 소리가 들리다가도 감사의 찬양의 노래가 들리곤 했다. 이제 우리는 처음 믿을 때보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와졌으므로 그때보다 더욱 간절하고 열렬하고 열성적이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위험은 그 당시 보다 더 크다. (교회증언 5권, 161, 162)

예수께서 당신의 지상 생애에서 지혜와 능력을 얻은 것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때였다. 청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새벽 미명과 해지는 황혼에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교통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종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인생 행로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 손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사 41:13)고 하신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 초기에 이런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그들의 생애는 참으로 신선하고 능력있고 참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교육, 259)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을 찢으라.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람이 신성을 가질 때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받은 것은 무엇이고 우리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구하여 받으라. 야곱과 같은 견인불발의 믿음과 엘리야와 같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구하라 .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이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시키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고후 4:6)고 하신 그분은 그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치시기를 기뻐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물들을 취하여 그대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인도하사 무한한 세계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대는 휘장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항상 살아계시사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예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실물교훈, 149)

3월 20일(수)

동요하지 않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약 1:6.

기도와 신앙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이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늘의 과학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평생의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해해야 할 과학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드려야 할 것을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구하고 또한 무엇이나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 그 조건들이 충족되면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죄사함과 성령,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기 위한 지혜와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면 어떤 선물이든 구할 수 있다. 그 후에 우리는 받은 것으로 믿을 것이요 또 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한다.

우리는 축복의 외면적 증거를 구할 필요가 없다. 선물은 허락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가 이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이미 받은 선물은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에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은 전 생애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므로 필수적인 것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거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나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이다.…

이전에 보지 못한 격렬함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 오락과 돈을 모으는 일과 권력 다툼과 생존경쟁 가운데 몸과 마음과 혼을 몰두하게 하는 무서운 세력이 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기서 나와서 당신과 교제할 것을 명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 46:10)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이 아니요 친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앉아서 교제하는 일이다. (교육, 257~261)

3월 21일(목)

마음과 생애의 순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하나님의 도성에는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살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마음이 청결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 사람은 부주의한 행동이나 무례한 말이나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점점 더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생각과 태도가 순결하고 세련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다만 세상이 이해하는 정욕에서 순결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욕적인 데서 해방이 되고 거기서 정결하여져서 영혼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진실하여지고 교만과 이기적인 생각도 없어지고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순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품성이 비슷한 자라야 서로 잘 이해한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품성의 원칙인 자아를 희생하는 사랑의 원칙을 우리 생애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악한 자들은 그분을 쳐다볼 수 없을 것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예수님의 영광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사망이 된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분의 얼굴을 피하기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내재로 그 마음이 정결함을 받은자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모세는 바위 틈에 숨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을 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과 동정심을 식별할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새롭고도 사랑스러운 관계 즉 그들의 구속자로서 보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의 청결함과 사랑스러움을 식별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회개하는 아들을 포옹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로 봄으로 그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라고 지정하여 주신 동안에 하나님이 저희 눈 앞에서 보이는 듯이 살며 또한 아담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에덴동산에서 동행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다. (산상보훈, 24~27)

3월 22일(금)

성화의 필요성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7.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람들은 진리의 능력의 산 추천장들이며 부활하신 주님의 대표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기에 더욱 적합하도록 취미를 세련시키고, 판단력을 거룩하게 하고, 영혼을 깨끗하고 고상하게 해준다. (내가 그를 알리라, 250)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함이니이다"(요 17: 19)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벧전 1:22)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고후 7:1)…

여기에 성경상 성화가 있다. 그것은 진리의 통로를 통해 얻는 성화이지 단순한 과시나 의무적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받아들인 진리를 생애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진리의 일부를 배척해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상 성화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충분한 빛이 주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잘못을 범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는 완전하셨지만, 은혜 안에서 자라나셨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사랑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성화는 한 순간이나 한 시간이나 하루의 일과가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것이다.… 사단은 살아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매일 그를 저항할 능력과 도움을 위해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사단이 통치하는 동안은 자아를 억제하고 유혹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는 멈추는 곳도 없고 온전히 도달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도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요 순결케 하시는 분으로 좌정해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반사되면 그들은 완전하고 거룩하게 되며 승천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교회증언 1권, 338~340)

3월 23일(안)

사단의 술책을 경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 벧전 5:8, 9.

모든 영혼으로 하여금 방심하지 않도록 하라. 대적이 그대가 나가는 길에 있다. 감쪽같이 숨겨지고 능란하게 가리워진 올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대를 얽어매지 않도록 깨어서 열심히 경계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겸손의 길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될 것이다. 눈이 멀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좁은 길을 버리게 될 것이다.…

승리하는 자는 경계해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사단이 세속적인 속박과 오류와 미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눈에 뜨이는 위험이나 뚜렷하게 위험성이 드러난 것만을 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 곁에 계속 가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원수의 나라에 살고 있다. 하늘에서 쫓겨난 그는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왔다. 그는 고안해 낼 수 있는 온갖 술책과 계교를 다해서 영혼들을 사로잡고자 애쓰고 있다. 우리가 계속 경계하지 않으면 그의 헤아릴 수 없는 기만에 쉽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8권, 99, 100)

지금은 모든 것이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엄숙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날과 관련이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야흐로 세상에 임할 것이므로 우리는 그 큰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시간은 귀중하다. 우리에게는 미래 즉 영생을 위해 준비할 은혜의 시간이 매우 적다. 우리에게는 함부로 행동함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다루는 것을 두려워 해야 한다. (교회증언 6권 407)

만일 그대의 관심을 전적으로 이 시기를 위한 진리와 준비하는 일에 쏟는다면 그대는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고 영생에 대한 적합성을 얻게 될 것이다. 철저히 준비하는 사업이 진리를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이나 점이 없이 또는 주름잡힘이나 그런 것이 없이 설 수 있을 때까지 진행 되어야 한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깨끗케 하시는 역사에 자신을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깨끗케 하실 것이다. (교회증언 2권, 111)

3월 24일(일)

모든 유혹에 대항하는 증인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롬 6:13, 14.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의 지배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한다. (치료봉사, 428)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요구된 무한한 희생의 댓가는 죄가 무서운 악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기관은 혼란해지고 마음은 왜곡되고 상상력은 더럽혀졌다. 죄는 영혼의 기능들을 퇴화시켰다.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을 마음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발걸음은 모르는 사이에 악으로 향하게 된다. 우리를 위한 희생이 완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더러움에서 회복되는 것도 완전할 것이다. 율법이 용서해 줄 악행도 없으며 정죄를 면할 불의도 없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율법의 모든 교훈을 온전히 이행한 생애였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요 15:10)켰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에게 순종과 봉사의 표준이 된다. (교회증언 8권, 312)

오늘날 사단은 우리가 자기에게 충성하면 세상 나라들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그리스도께 제시했던 것과 똑같은 유혹들을 던진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사단의 유혹은 힘이 없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으되 죄는 없으신 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사단은 범죄케 할 수 없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24)

죄를 버리는 것은 영혼 스스로가 할 행위이다. 우리 자신이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시대의 소망, 466)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대의 오염 속에서도 굳게 서서 선한 일에 열심할 한 백성을 두실 것이다. 거룩한 능력을 굳게 붙잡으므로 모든 유혹에 대항하는 증인들이 될 한 백성이 있을 것이다. (교회증언 3권, 472)

3월 25일(월)

은혜의 시기가 지체되는 이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나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동화되기 보다는 세상에 동화될 위험이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상의 경계에 와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멀리 연장시키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영혼들의 원수가 가진 목적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공언하며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서 우리 구주의 두번째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온갖 방법을 고안하여 공격할 것이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죄 가운데 있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습관들을 모방하여 세상과 같은 정신을 갖게 할 것이다. 나는 세상의 정신이 진리를 높이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으로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앞에 놓인 큰 사건을 위한 엄숙한 준비를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분명히 시기가 연기되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말과 행실에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되었다.…

그들은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위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은혜의 시기를 연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매 순간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들에게 시간이 허락된 것은 자신의 안일을 연구하여 세상에 속한 백성이 되는 일에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모본과 개인적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성품에 있는 모든 결점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사용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결혼예복을 입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믿음과 거룩한 소망 가운데서 신속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예언의 기록을 연구하고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의 순결을 얻고자 애쓰고 있는 한 백성을 세상에 두고 계시다.…

예언된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열렬한 활동을 하도록 각성시켜야 한다. (교회증언 4권, 306, 307)

3월 26일(화)

심판때가 다가옴

"하나님을 두려워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계 14:7.

1844년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조사심판을 시작하시고자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 가셨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25)

심판 때 기록책이 펼쳐질 때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된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생존한 자로부터 지금 생존하여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각 사람의 사건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제기하시리니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우고 자세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받으시는 바 되는 이름도 있고 거부하시는 바 되는 이름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하심을 받지 않고 그냥 죄의 기록을 남겨두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전통적인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와 수치를 회개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겸손하게 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보존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겸손히 해야 한다. 그들은 깊고도 성실하게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기의 마음속에서 맹렬히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악습을 이기고자 하는 자의 앞길은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는 것이다. 준비하는 사업은 개인적인 사업이다. 우리는 집단으로 구원받지는 못한다. 한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면의 결점을 채울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아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각시대의 대쟁투, 483, 489, 490)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 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 아래 용서를 받았다는 글이 기록된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자임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족한 자가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사 43:25)(각시대의 대쟁투, 483)

3월 27일(수)

그대가 신뢰할 수 있는 한 표준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엡 6:11.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마는 더욱 맹렬한 활동을 하는데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대항하는 최후의 싸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머지 않아 우리 앞에는 최후의 큰 기만이 나타날 것이다. 적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진정한 것을 너무도 닮음으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을 분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모든 논술과 모든 기적은 성경의 증언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한 자들 외에는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자가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철저한 시험이 이를 것이다. 결정적 시간이 박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의 반석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굳게 설 준비가 되어있는가?…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권하여 자기의 모본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최상의 의무이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의미를 잘 검토하고 각 구절들을 대조하면서 매일 부지런히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 마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그러나 위급한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해주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교훈이 마음 가운데 쌓여 있어야 한다.…

시련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은 드러날 것이다.… 박해여 오너라. 그리하면 열심 없는 외식하는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견고히 설 것이요 평안하던 때보다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그들의 소망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593~602)

3월 28일(목)

우리의 방패가 되는 성경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 1:14.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산 믿음을 고수하는 한, 그들은 하늘 천사들의 보호하에 있으므로 사단이 흉악한 술책을 발휘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다.…

오늘날 사단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영혼들을 빼앗기 위하여 열중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계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그밖의 다른 많은 죄악적인 특성들을 심어줄 것이다. 그는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술책을 다 사용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없고 당신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없다면 원수의 오류와 궤변에 속아 멸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된 교리가 그들의 기초를 무너뜨릴 것이다. 사단의 간계에 대한 유일의 방패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이치를 지혜롭게 이해하고 이미 깨닫고 있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행하는 것이다. 알고 있는 한가지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연약해지고 분별력이 흐려져서 맹렬한 시험에 굴복당하게 된다.…

우리는 마음 문을 예수님을 향하여 열어 놓고, 사단에게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막아 놓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설 수 있기 위하여 더욱 밝은 빛과 더욱 큰 능력을 얻고 있는가? 우리는 하늘로부터의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준비로서 이기심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승리하는 사업은 위대한 사업이다. 우리는 그것을 정력과 인내심으로 붙잡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더러운 옷"은 벗겨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옷이 우리에게서 강제적으로 벗겨져 나갈 것으로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에서 떠나고자 해야 한다. 그러면 원수가 우리를 박해하는 환란의 날에 천사들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랄드, 1908. 11. 19)

3월 29일(금)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 벧후 2:9.

우리 앞에 있을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분노와 두려움을 말하는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온 사람들에게는 빛과 자비와 구원이 된다. 반역한 자들을 진멸시키기에 강한 팔은 충성된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강할 것이다. 모든 충실한 자들은 틀림없이 함께 모일 것이다.…

그대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대는 하늘과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대한 준비 사업을 깨닫고 있는가? .… 이제는 아무도 이 세상의 불행의 근원이 되는 죄와 상관하지 말도록 하라.… 그대의 영혼의 운명이 불안 속에 묻혀 있지 않도록 하라. 그대가 온전히 주님의 편에 있음을 알라.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하는 질문이 성실한 마음과 떨리는 입술에서 나오도록 하라. 그대는 이 마지막 귀중한 은혜의 시기에 그대의 품성 건설에 가장 훌륭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모든 오점에서 깨끗케 하고 있는가? 그대는 믿음을 공언하는 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가?

부드럽고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감화가 그대에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대가 가진 빛이 죄악으로 망해 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있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부족함이 드러나서 영생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는 부수적이요, 형식적인 신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의 교훈을 몇가지 실천하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은 되지마는, 그리스도인 품성에 없어서는 안될 특성들이 부족하므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비의 기간이 연장되어 구주께서 중보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영생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자(교회증언 6권, 404, 405)

큰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박두해 있다. 그 위기에 있을 시련과 시험을 대항하고자 그 의무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끈기있는 믿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럽게 승리할 수 있으나 경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영혼은 원수에 의하여 덫에 걸리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6권, 404)

3월 30일(안)

깊고도 생생한 경험

"우리가 이와 같이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읍니까 이 구원은 주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히 2:3(새번역)

나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지체시키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비하라 예비하라 세상에 임할 일을 위하여 예비하라 네 행실이 네 믿음과 일치하도록 하라" 나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의뢰하여야 할 것과 우리의 감화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여야 할 것을 보았다. 우리는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일을 가장 중대히 여길 것이며 다른 일은 둘째로 삼을 것이다.

나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 보내는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다. 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기이하신 사랑을 얼만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영예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지극한 흥미를 가지셨으므로 사람들이 당신에게 행한 모든 능욕과 멸시를 겸손하게 참으시고 당하셨다. 그분께서는 찔림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또한 상함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쓰라린 죽음을 당하셨다.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피로 씻어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예비하신 하늘 집에서 그분과 같이 살며 하늘의 빛과 영광을 즐기고 천사의 노래를 들으며 또한 천사들과 같이 노래할 수 있게 하심이다. 나는 온 하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할 것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을 사소한 일처럼 생각하고 부주의할 것인가?… 우리 발을 이 어두운 세상의 위태함을 통과하여 하늘로 인도하기 위한 안내서가 주어졌다. 그 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기 위하여 산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고생을 당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교회증언 1권, 123~125)

경건의 모양은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깊고 산 경험을 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환란의 때에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때에 그들의 공력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 시험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일 것 같으면 그들은 여호와의 은밀한 장막에 숨겨질 것이다. (교회증언 1권, 125)

3월 31일(일)

예비하고 예비하고 예비하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암 4:12.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누가…그분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연합하며 하늘 임금의 자녀들과 조화를 이루어 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그대는 심판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했는가? 그대는 하나님과 화친하였는가? 그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지금 이대로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혼 예복을 입고 있는가?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가?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지위가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가치가 있도록 하시는 분은 마음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대총회 회보, 1903. 4. 6).

내 시선은 지상의 남은 무리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마지막 칠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대들은 살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대들은 지금보다 더욱 준비하여야 한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라 모든 것 즉 자신과 재산과 그밖의 모든 것을 산 제사로 그의 제단에 바쳐라. 그렇게 한 자들은 모두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초기문집, 66, 67).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당신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악한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성실히 따르는 자들에게 날마다 동료가 되셨고 친근한 친구가 되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계속 교제하면서 살았다. 그들 위에 주님의 영광이 비쳤다.… 이제 그들은 위엄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왕의 광채와 영광의 빛 가운데서 기뻐한다. 그들은 하늘과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다(실물교훈, 420, 421).

만일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실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하늘의 처소들, 227).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2019년 겨울 장막 집회

주제 :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 6:3)

일시 : 2019년 1월 15일(화) ~ 1월 20일(일)

주님의 오심의 징조들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소리 외침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온 세상을 그분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의의 기별자들의 말씀과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 하고자 하시는 분은 모두 오셔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SDARM 김천교회

전화 054. 435. 1843.
경북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983-23

<버스 이용시>

김천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지례 방향 버스 탑승 후 약 20분후 과곡 정류장에서 하차

<승용차 이용시>

김천IC에서 거창 지례방향 3번 국도로 20분간 운행한 후 과곡 교차로에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약 200m전방에 표지판 보임